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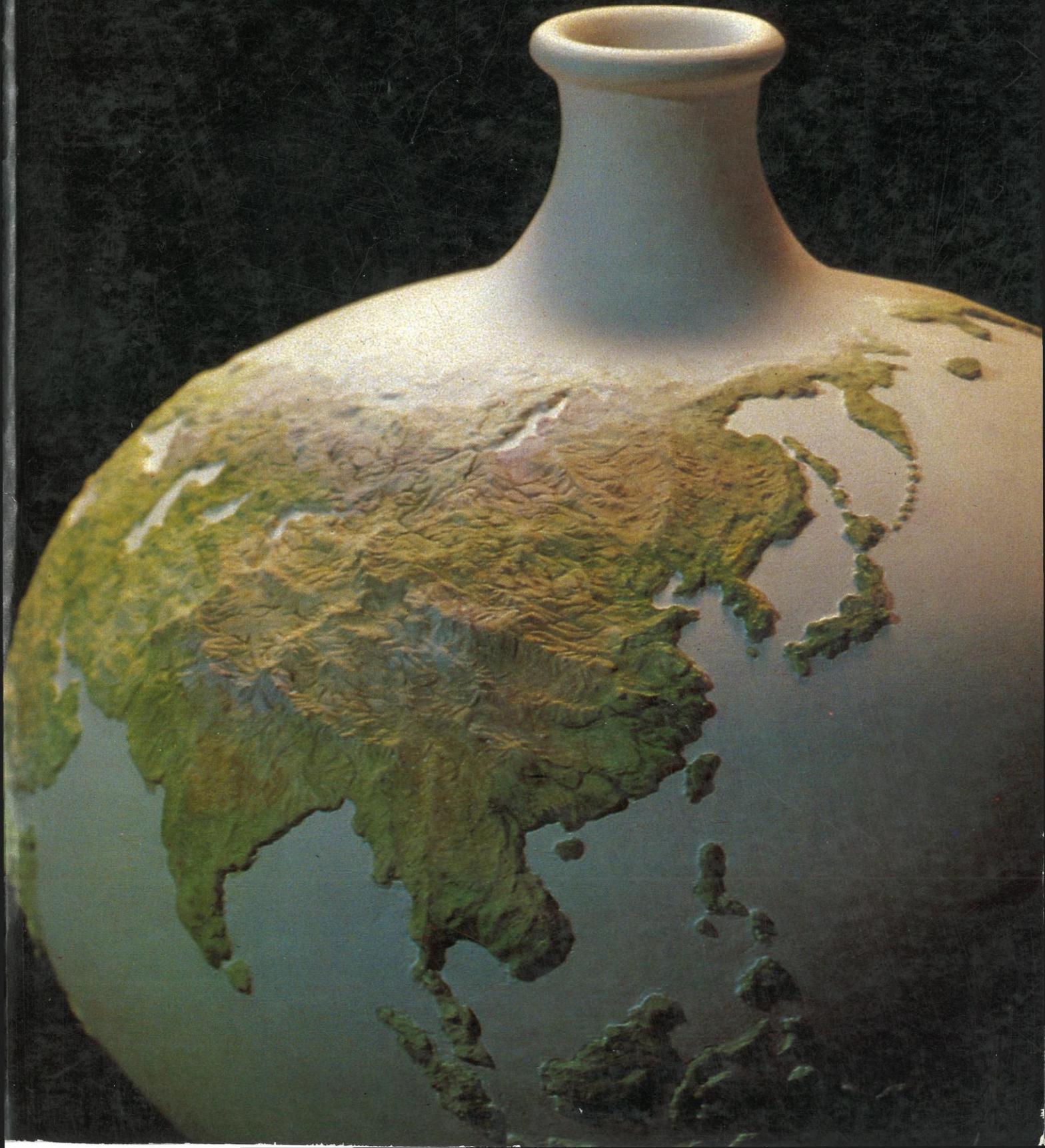
• 登録日 1971年 1月 14日 • 登録番号 甲-599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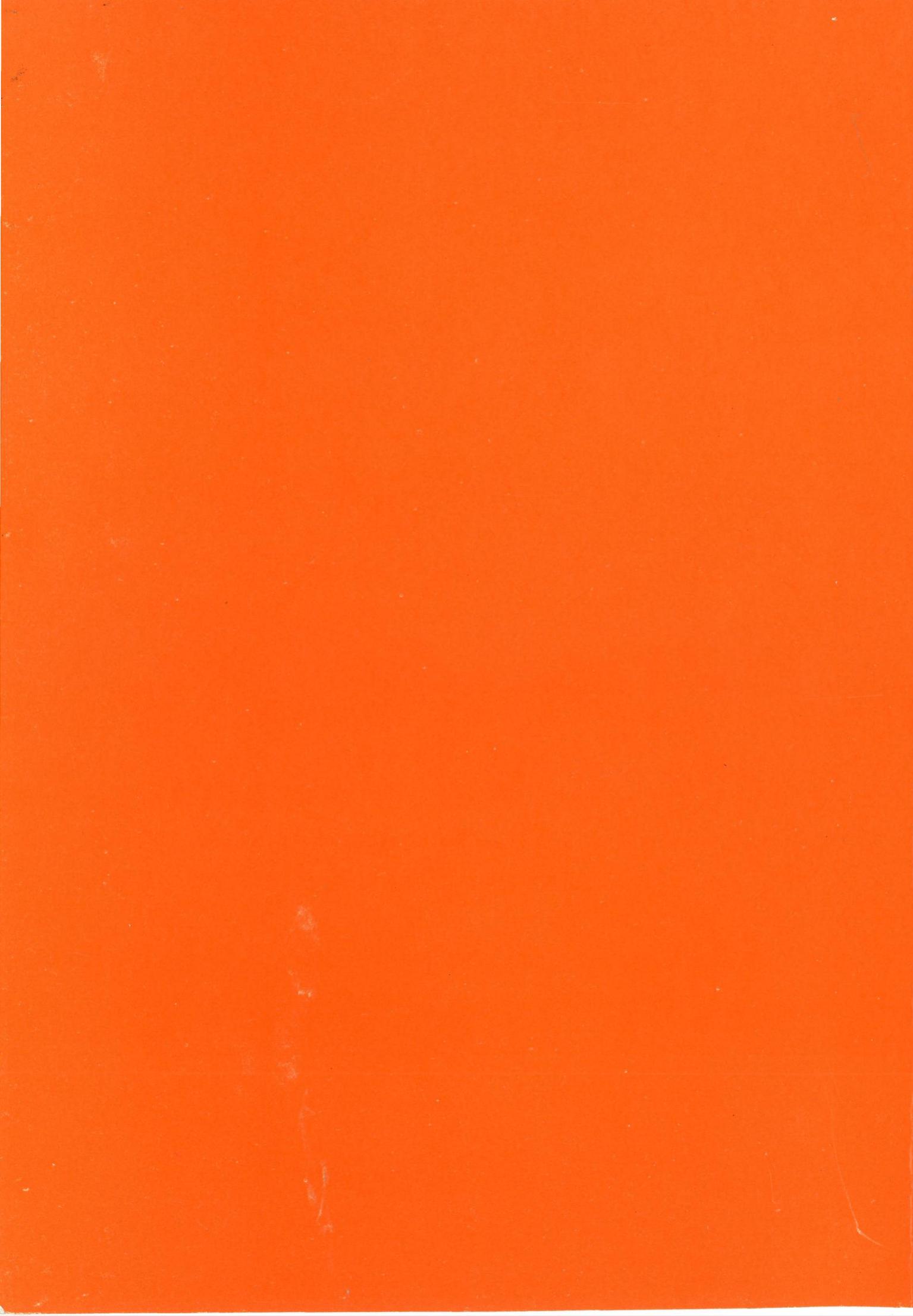
디자인 · 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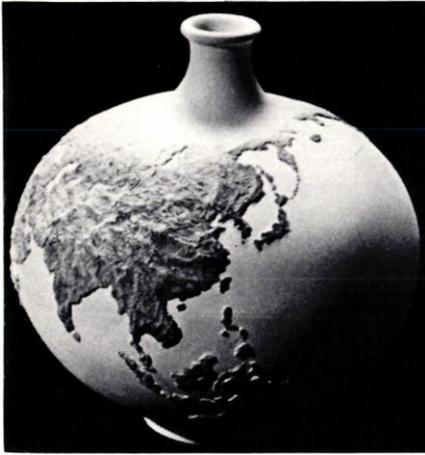
42

1979 VOL.10

Design & Packaging







「디자인·포장」을 하얀 백자 항아리로 상징화시켰다. 이 백자는 온 지구를 포용하는 형태로 착시되어 「디자인·포장」의 범세계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 「디자인·포장」 通卷 第42號 Vol. 10

● 発行 金 熙 德

● 発行日 1979年 2月 5日

● 編輯·発行 한국디자인포장센터

本社/서울特別市 鍾路区 蓮建洞 128-8

Tel. (762) 9461~5

示範工場/서울特別市 永登浦区 加里峯洞 第2工場

Tel. (85) 6101~4

釜山支社/釜山直轄市 釜山鎮区 鶴章洞 261-8

Tel. (92) 8485~7

● 印刷·製本 三和印刷(株)

● 価 格 1部 1,500원/1年 구독료 8,000원

● 프롤로그 2

『좋은 디자인은 보다 나은 생활을 향하게 한다.』

Better design for better living

● 韓国 디자인·包裝 20年 4

20 Years of Korea Design & Packaging

● 都市空間의 街路裝置와 産業 디자인의 역할 2 6

Street Furniture of City Space and Role of Industrial Design

誠信女子 師範大學 專講 鄭大有

● 특집 예고 11

영국의 그래픽 디자인 교육 및 현황

● 우리 나라 디자인의 土着化 12

Naturalization of Design Technique

弘益大學校 美術大學 教授 崔大錫

● 原色画報 13

1978年度 国内 디자인 公募展 受賞作品

Color Pictorial-Awarded Works of Public Subscription in 1978

● 傳統工藝 17

Traditional Industrial Arts

淑明女大 工芸科 副教授 金聖洙

● 사라져 가고 있는 漆器 항아리 22

Lacquer Pot is fading away.

慶熙大學校 産業大學 副教授 姜壽華

● 韓국의 傳統紋樣 24

Traditional Patterns in Korea

國立中央博物館 學芸研究室 林永周

● 덴마크의 社會保障制度和 身體障礙者들을 위한 特殊施設 29

Danish Social Security System and Special Institution for the Handicapped

● 産業 디자인의 現實과 展望 36

Reality and Prospect of Industrial Design

中央大學校 工芸學科 教授 郭元模

● 5% 美의 作業? 38

梨花女大 美術大學 助教授 李順燮

● 「아르 누보」 포스타 39

Art Nouveau Poster

弘益大學校 美術大學 教授 權明光

● KSID 제7회 회원전 및 제1회 공모전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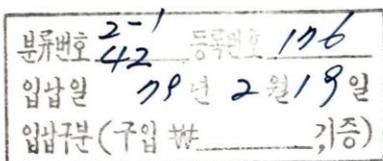
서울大學校 美術大學 教授 夫守彦

● 外國의 패키지 디자인 개발 사례/Suchard-Express 46

韓國 디자인 包裝 센터 主任研究員 金鍾午

● 디자인 뉴스 48

Design News-New Product



『좋은 디자인은 보다 나은 생활을 當為하게 한다.』

Better design for better living

人間이 살아 나가는 데는 평생을 어떤 用具와 器物을
처하며 살아 나가는 것이다. 卽 이런 用器나 우리들이 살고 있
는 집이나 집기들이 共히 生活空間의 必要不可缺의 것들인데, 이
런 器具들이 바로 디자인이란 過程을 거친 용구이며 또한 道具
들인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우리는 항상 生活 속에 디자인
이 깃들여져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디자인의 直接的인 必
要性은 더더욱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공기를 항상 흡족히 호흡하고 있기에 그
것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는 것이다. 디자인은
그저 한갓 치장만을 위한 外形의인 특수한 일이라고만 생각하
는 사람이 많으며, 흔히들 이 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우
리의 現實이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온통 디자인 속에 파묻혀 지내면서도 그
것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의 진정한 뜻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디자인은 實際 인류가 始作되면서부터 어떤 사인(Sign)이 표
시되어 언어가 생기듯 表記하는 문체에서부터 이미 生成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사인(Sign)이 숫자로 되건 象形文字로 시작되었건 이미
그것은 디자인과 밀접한 관계의 造形性을 지니게 된 것이라 하
겠다.

그 후 인류가 衣·食·住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는 것과 같이 本格的인 디자인이 始作된 것으로 보
아 디자인을 한갓 외형의 미화라고만 여기는 것은 특히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인 것이다.

歐·美·日이 디자인 感覺에 우수하고 디자인을 잘 연구 활
용해 왔으므로 오늘날 現代生活의 첨단을 걷는 先進國家가 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현대는 모든 것이 多樣化·細分化되는 現象이 두드러져 이는
디자인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제품디자인·시각디자인·일러스트
레이션 등으로 細分化된 것을 총합적으로 '産業 디자인'이란 말
로 통칭하고 있는데, 이 산업 디자인 속에 특히 우리나라가 지니
고 있는 숙명적인 장르가 바로 工業 디자인 분야인 것이다.

大企業은 自体 디자이너를 기용하여 工業 디자인 設計나 렌더
링·모델링 등으로 어떤 제품들을 곧잘 표출시킨다. 그러나 中
小企業이나 다른 메이커에서는 이들 디자이너들을 기용하기는커

닝 기존 제품의 모방이나 標榜的 디자인으로 製品을 만들어 내고 있는 實情이다. 더욱이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에게 單獨的이고 獨創的인 제품을 새롭게 창안하지 않고 디자이너를 기용하지도 않는 이유를 문의하면 그것은 型값이 비싸고, 고용비가 들어서 라고 말한다. 물론 기업이 제작 코스트와 市場性을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디자인 연구에 관한 기초 자본에는 그 자본이 0.1%, 0.2%라도 기여치 않으려는 경영자들의 인색한 기피 현상을 우리들은 잘 안다. 이는 물론 자금의 압박 속에서 기업의 성장이 어렵고 우리나라 기업의 財務構造의 形便上 디자인이란 無形의 자본 투자엔 너무나 出賣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또 디자인은 그저 돈을 낭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점에서 우리 디자인의 발전도 僻 暗澹스럽고 어려운 實情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이다.

잘 살기 원하고 보다 아름다운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人間의 本性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아름답게 그리고 便利하게 살고 싶어지는 것은 當然한 所致인 것이다. 아름답기만 하고 쓸수 없는 것은 그저 하나의 裝飾品에 지나지 않으나, 보기도 좋으며 쓰기도 편한 것을 만들어내자면 僻 機能의인 美를 겸

한 디자인 제품이 되어야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한 디자인을 위해서는 주위의 방대한 여러 科學的인 일들이 받침이 되어야만 비로소 훌륭한 現代的 감각의 디자인 製品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순수 공예나 시각디자인은 그런대로 손색없는 경지까지 왔으나, 공업 디자인 분야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허다히 남은 디자인 분야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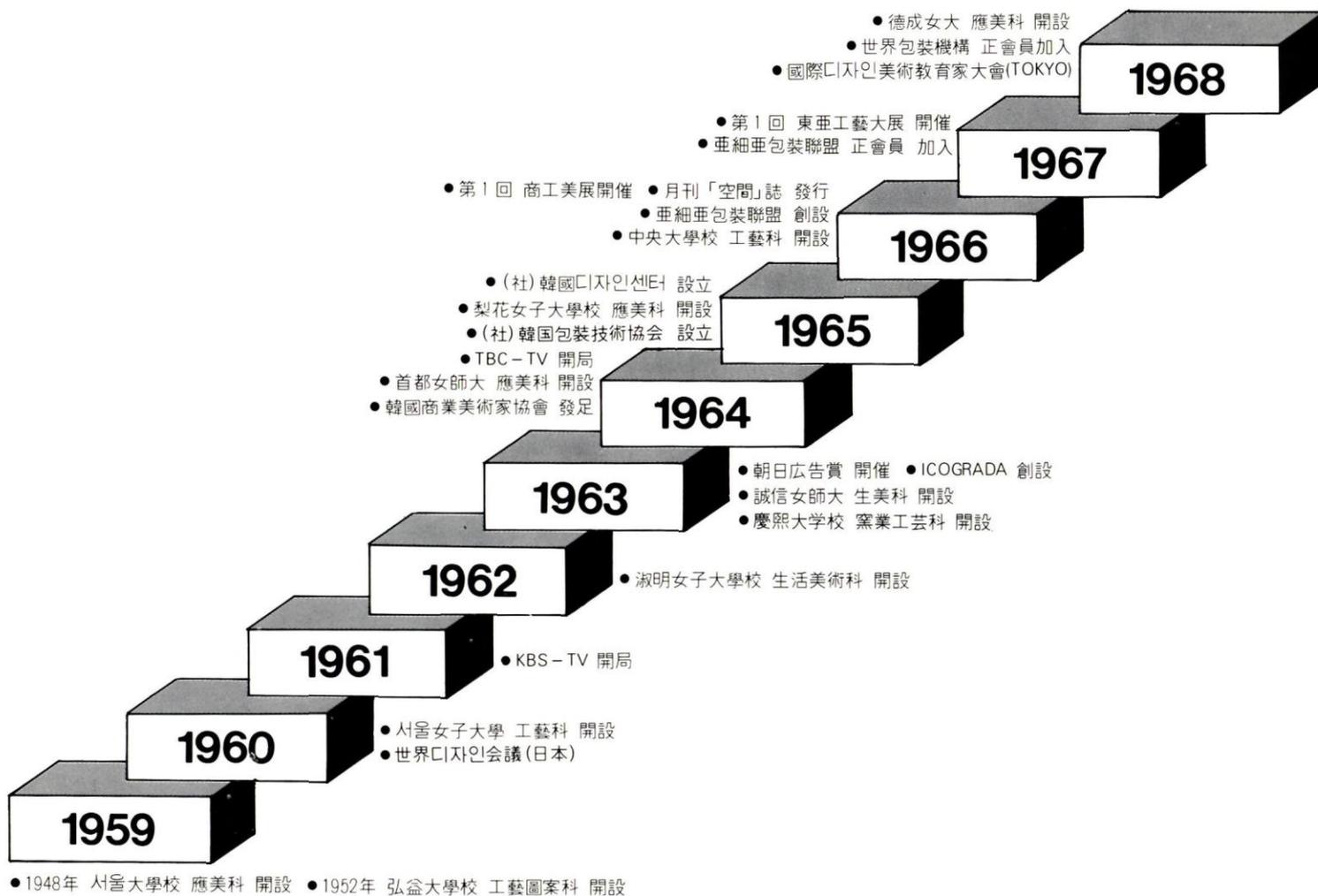
재료학과 機械工學的 技術 문제까지 반드시 함께 연구해 나가야 할 이 장르는 1980年代 우리나라 디자인계가 안은 크나큰 숙제의 하나이며, 공업 디자인의 개척을 위해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의 기법과 메카닉과의 어프로치를 여하히 디자인 작업에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공업 디자인이 左右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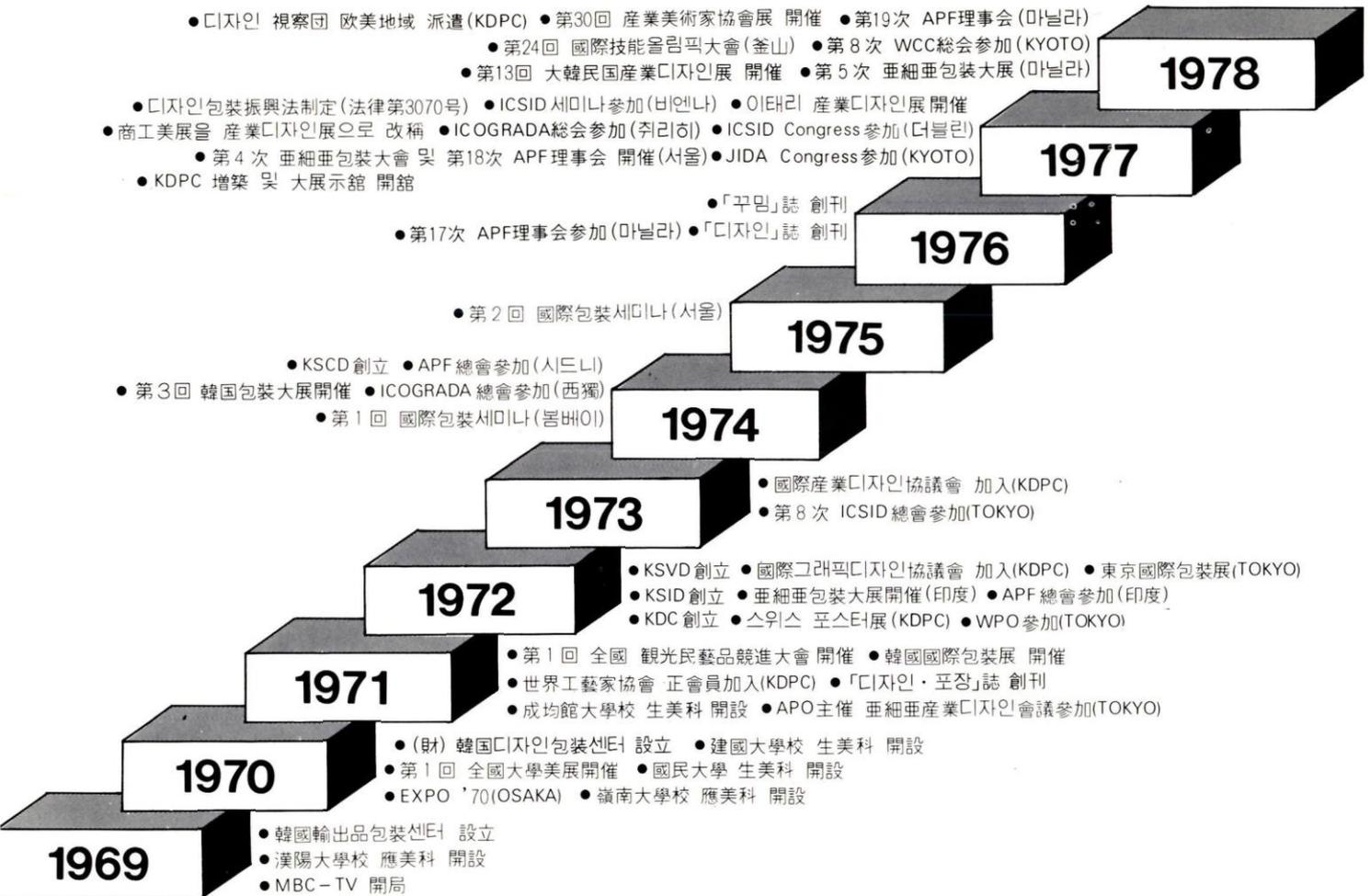
'허버트 리이드'가 말하기를「좋은 디자인은 보다 나은 生活을 영위하게 한다」(Better design for better living)는 말을 했다. 이는 과연 지극히 간결한 말이지만 디자인의 전부를 명백히 대변하는 함축성 있고 뜻있는 말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이 디자인은 보다 잘 살기 위한 정신적·미적 작업의 하나라고 보면 틀림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이 「디자인·포장」誌 改訂과 더불어 내일예의 디자인 발전을 기원해 본다.

韓國 디자인 · 포장 20年

20 Years of Korea Design & Packaging





都市空間의 街路裝置와 産業 디자인의 역할 2

都市의 景觀的 側面을 중심으로

Street Furniture

鄭 大 有
誠信女子師範大學 專講





都市空間과 街路裝置 (Street Furniture)

여러 가지 형태의 건물에 둘러싸인 도시 공간에는 도시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도시 가구(都市家具)들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인구가 특정 지역으로 계속 몰려드는 인구 과밀 내지 과잉인 대도시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진다. 예를 들면 도시 활동을 유도하고 부대적 시설이긴 하지만 꼭 필요하고 모든 도시인에게 공동으로 사용되는 벤치·간판 기타 상징적인 장식과 같은 수건축(手建築)들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작은 스케일로서 우리들이 항상 사용하거나 볼 수 있는 것으로 광장이나 가로(街路)의 질(質)을 지배하고, 이것들의 편재적(遍在的) 존재로 거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 가구들이 전체가 되어 도시를 압도할 수 있는 것이다.

도시에서 요구되는 가로 가구(街路家具)의 요소는 대단히 많은데, 이러한 것들은 자기 특정한 장소에서 그 기능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 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 제625호, 1962. 4. 3, 개정 1973. 7. 18, 대통령령 제6775호) 제1장 총칙 제3조에 보면 시설의 세분화를 살필 수 있다.

(1) 도 로

- ① 일반 도로
- ② 자동차 전용 도로
- ③ 보행자 전용 도로
- ④ 고속 도로

⑤ 고가 도로

⑥ 지하 도로

(2) 광 장

① 교통 광장

② 미관 광장(美觀廣場)

③ 지하 광장(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건조된 광장)

(3) 주 차 장

① 노상(路上) 주차장

② 노외(路外) 주차장(건축물의 용도가 주차장인 것을 포함)

(4) 자동차 정류장

① 여객 자동차 정류장

② 고속 여객 자동차 정류장

③ 화물 자동차 정류장

(5) 고속 철도

① 지하 철도

② 고가 철도

③ 전 명목(前名目)에 부대되는 시설

(6) 공 원

① 어린이 공원

② 자연 공원

③ 근린 공원(近隣公園: 동물원·식물원 포함)

④ 묘지 공원

(7) 광 장

① 중앙 도매 시장

② 소매 시장(대지 면적이 1천 제곱 미터 미만인 것은 제외함)

③ 백화점(대지 면적이 1천 제곱 미터 미





만인 것은 제외함)

제 2 조에 기타의 도시 계획 시설물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 ① 연구 시설
- ② 종합 의료 시설
- ③ 통신 시설
- ④ 유수지(留水池) 시설

특히 대도시에 있어서는 도시 생활의 복잡한 발전에 대응하여 공공 공지(公共空地)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시민의 휴식·산책·관상용으로 그 중요성이 불가피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 가구는 도시인의 생업(生業)을 위한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도시 생태학적(生態學的)인 측면에서 공공 공지 내에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공공 공지가 뜻하는 내용은 도시 계획법에 의한 공공 사업의 대상으로 되는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 명시된 공원은 어디까지나 도시 공원법의 대상으로 되는 도시 공원에 한정되고, 자연 공원법의 주우닝 시스템(Zoning System)에 의한 자연 공원, 즉 국립 공원·국정 공원·시도립 공원 등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녹지에도 시가화 조정 구역(녹지대에 상당함)이나 수도권 근교 녹지 보호법에 의한 녹지 보호 구역을 포괄하는 것도 아니다.

공공 공지(Public Open Space)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 공지

- ① 공원
- ② 녹지
- ③ 광장
- ④ 운동장
- ⑤ 묘원(墓園)
- ⑥ 기타
- (2) 공 원
 - ① 유아 공원
 - ② 아동 공원
 - ③ 근린 공원
 - ④ 지구 공원(地区公園)
 - ⑤ 중앙 공원
 - ⑥ 종합 공원
 - ⑦ 운동 공원
 - ⑧ 풍치 공원(風致公園)
 - ⑨ 특수 공원
 - ⑩ 기타
- (3) 녹 지(綠地)
 - ① 자연 녹지
 - ② 수경 녹지(修景綠地)
 - ③ 완충 녹지(緩衝綠地)
 - ④ 피난 녹지
 - ⑤ 공용 녹지
 - ⑥ 녹도(綠道)
 - ⑦ 기타

이상에서 분류된 공공 공지는 현단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도시 계획 행정상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장래의 분화(分化)를 예상해서 정한 기준은 아니다. 분류 방법은 반드시 기능면에서 일원적(一元的)으

로 정리된 타당성 있는 것이 아니며 도시 계획 행정상 편의적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된 도시의 시설과 공공 공지에 도시의 부대 시설물인 가구들을 어떻게 설치하여 주느냐에 따라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도시인에게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인간의 최소의 기본적 만족감을 주면서 창조적 환경을 조성하여 줄 수 있다. 도시의 가구들은 도시 미관을 조화시켜 주고, 기능면으로도 보행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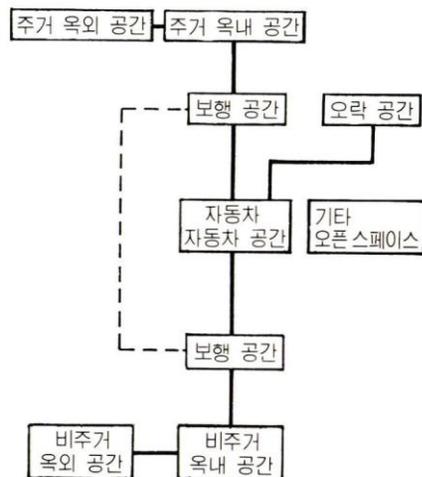
보행은 인간의 기본적인 능력으로서 인류 문명의 발달의 기초가 되어 왔다. 도시는 보행자의 편리와 쾌적한 생활을 위해 인간적인 척도에 따라 설계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 혁명과 더불어 모든 도시가 기계화됨에 따라 인간적인 척도에서 발생되었던 인류의 집단 생활의 구조는 기계 문명의 척도 속에 인간 위주의 척도가 물러나는 현상이 도시 공간에서 그 모순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도시 공간 설계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 생활의 편리성에서 찾아야 한다. 도시 가구는 인간 스스로 행동하는 공간, 즉 보행자 공간에 깊은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보행자 공간(Pedestrian Space)이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동하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와 기능이 인간의 보행 활동에 알맞도록 설계된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행자 공간은 자전거나 자동차를 위한 공간과 구별되며, 보행자 공간의 설계를 위해서는 보행과 관련된 공간의 기능 및 인간적 특성에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구성 요소



자료 : Pushkarev의
 “Urban Space for Pedestrian”
 (M & T, 1975) P. 3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을 위한 행동 공간으로서의 보행자 공간의 대표적인 것은 도시에서는 가로 및 기타 보행로 등으로서 행동 범위와 함께 광범위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거주구(居住区)의 통학로(通學路)·통근로(通勤路)·보행로, 광장에서 도시 규모의 보도(歩道)·광장·공원으로 거주구→도시→국토의 공간 서열을 이루고 있다. (그림 참조)

도시 내 보행자 공간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주구와 직장 등을 연결하는 장소로서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을 담는 공간으로서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근간을 이룬다.

도시 공간에 놓이는 도시 가구들은 보행자의 기능을 원활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물과 경관(景觀), 주위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린치(Kevin Lynch)는 보행로를 포함한 모든 가로는 통로로서 도시 이미지의 지배적인 요소가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대 도시는 복합된 여러 활동과 움직이는 보행자의 만화경(萬華鏡)이다. 보행자들이 맴돌고 복잡한 활동을 할 때, 가로의 가구 장식들은 보행자의 움직임을 인도하고 풍요롭게 하는 요소가 된다.

도시 가구는 도시의 외부 공간인 광장·가로·보도 등 도시인의 생활 공간·유희실·현관(Parlour)에 장치된 요소로서 보행자들이 도시의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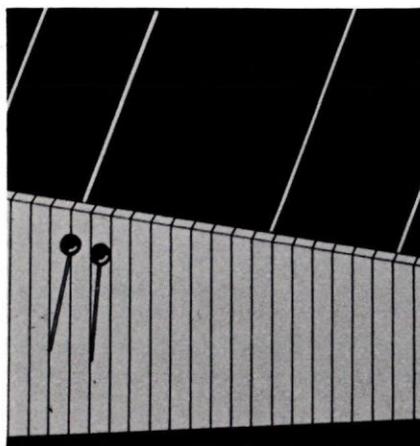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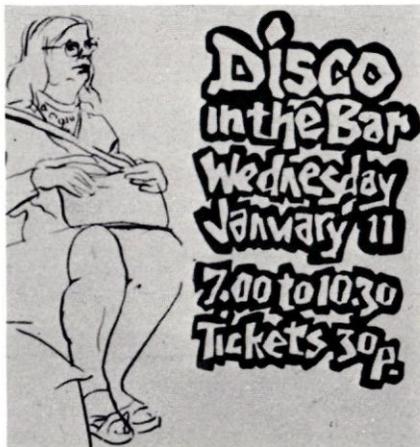
특집 예고!

“영국의 그래픽 디자인 교육 및 현황”

“유럽 각국의 사인 시스템과 그래픽 디자인”

서울 대학교 미술 대학 김 교만(金敎滿) 교수는 작년 4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영국의 세인트 마아틴스 스쿨 오브 아트(Saint Martin's School of Art)에서 그래픽 디자인에 관한 연구를 하였으며, 동 대학에서 개인전(個人展)도 개최하였고, 또한 런던에 있는 미술 대학들의 졸업전(Degree Show)도 참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런던의 각 공항 및 철도역의 환경 디자인(Environmental Design)과 유럽 각국의 사인 시스템(Sign System) 및 그래픽 디자인도 자세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시각 디자이너(Visual Designer)로서의 예리한 비교 분석과 풍부한 사진 자료들은 독자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보탬이 될 줄 확신합니다. —[편집자 주]



우리 나라 디자인의 土着化

●概 觀

우리 나라는 1960년대의 공업 입국(工業立國)을 표방하고 그 기반을 닦는 데 총력을 경주한 이래 개발 도상국으로서의 고도의 경제 성장을 구축하여 중진국 대열에서 선진국을 향해 진출을 질치고 있는 이 때, 새삼스레 디자인의 토착화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이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 디자인의 본격적인 정착은 산업 구조상으로 보아 시기 상조라고 지적하며, 아직 과도기적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올바른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우려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이들은 급속한 경제 성장이나 국민 소득의 증대를 디자인의 발전이 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이룩된 데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기도 한다.

문제는 디자인이 산업 구조상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등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처한 특수한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과는 무관하게 보는 과오에 있으며, 또한 디자인을 우리의 삶의 절실한 수단으로서 인식하지 않고 부가적 수단으로서 인식하는 데 있다.

디자인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발전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1960년대부터 우리 나라의 현대 디자인이 탄생되었다고 한다면, 그 때는 상대적으로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가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까지의 이상적 디자인론이나 외국의 우수한 디자인 정책 및 근대화에 앞장섰던 선진국의 예를 무작정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 등이 많았음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진정 무비관적으로 서구화된 디자인을 모방하거나 답습하는 시기에서 벗어나야 할 때인 것이다.

●우리 나라 디자인의 土着化 문제

그간 디자인의 토착화 문제는 가끔 거론된 적이 있는데, 국내외 각국의 디자인 잡지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세계 각국의 「모던」 하면서도 특유하고 민족성을 풍기는 그 나라의 고유한 디자인을 자주 보아 왔고 또한 흠모해 왔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나라가 주도해 온 디자인전은 물론 디자인 교육면이나 기업의 경영 합리화에 따른 구조 개선으로 어느 정도 디자인계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아직 이렇다할 근원적 디자인의 본질을 전제로 한 디자인 시스템이나 정책이 결여된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 디자인의 토착화는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고 또한 이를 바탕으

로 할 때 비로소 그 정착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우리 나라 디자인의 土着化 방안

그 하나는 우리 민족 특유의 전통적 의식 구조에 따른 한국인에 관한 연구요,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地政學的) 환경의 특수성에 관한 연구이며, 다른 하나는 올바른 사관(史觀)에 입각한 오늘 이 시대의 조국의 당면 과제를 직시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독특한 디자인 시스템과 정책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디자인 정보 센터나 작 기업이그 기업의 특수성에 따른 기업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여 그 바탕적 연구를 실시해야 하는 것 등이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당면 과제는 이와 같이 민족·환경·시대의 당위성을 전제로 전통과 현대, 민족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화하고 재창조하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 문제는 자아 확립의 과제와 세계 속의 한국이라는 보편적 과제와의 통일의 필요가 제기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전통과 현대, 민족성과 보편성과의 원만한 조화를 이룩하는 데서 우리나라 디자인의 방향이 설정될 수 있고, 한국적인 독특한 디자인의 토착화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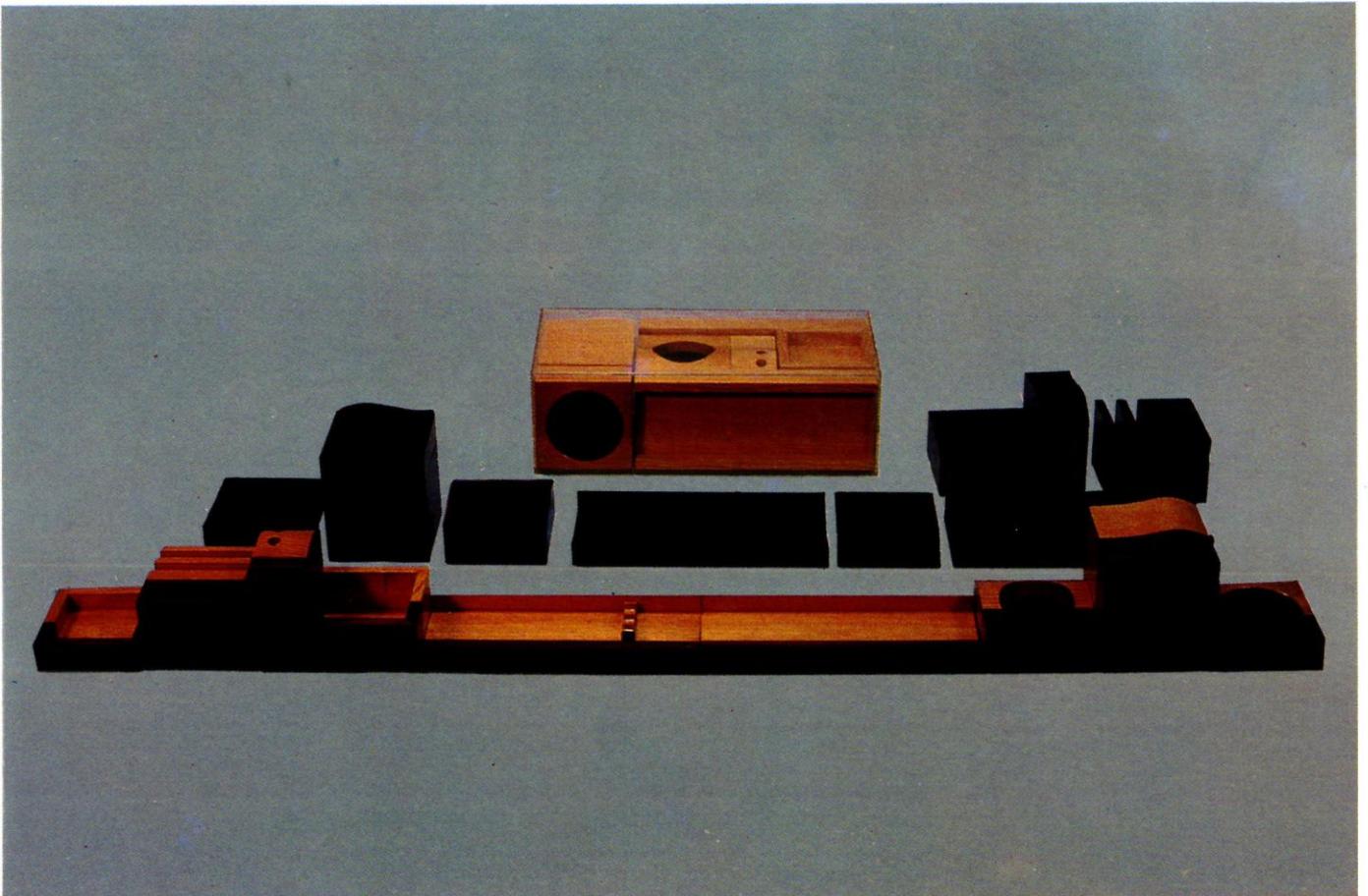
Awarded Works of Public Subscription in '78

1978年度 国内 디자인 公募展 受賞作品

1978년도 디자인계의 전시 행사는 제13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을 비롯하여 각 단체의 회원전과 단체가 주최하는 전국 공모전·그룹전·개인전 등 그 어느 해보다도 풍성했다.

본지에서는 작년에 치뤄진 각종 전시 행사를 빛내기 위해 제13회 산업 디자인전과 대한 산업 미술가 협회의 제4회 전국 공모전, 제1회 KSID전 등 공모전에서만 입상한 많은 작품 중에서 8개 작품을 다시 선정하여 컬러 화보로 엮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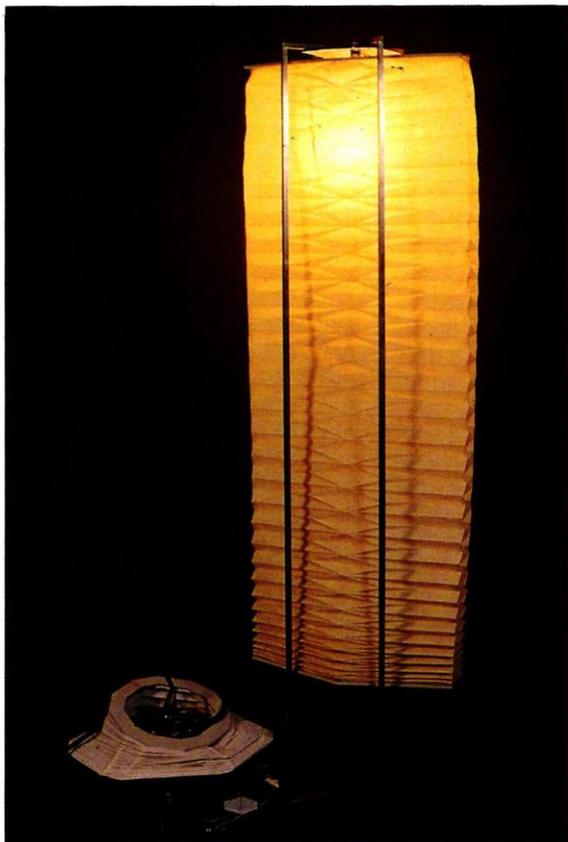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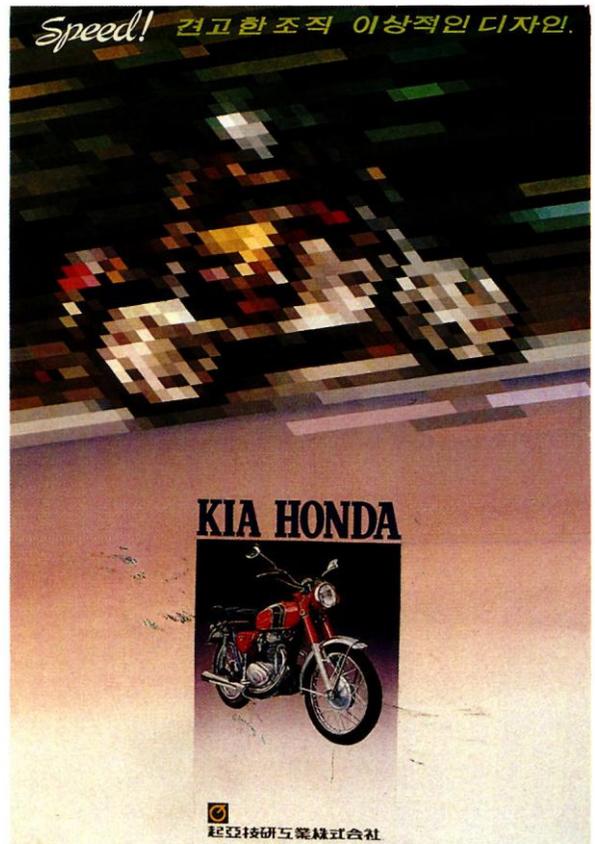
제13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대통령상 「수출용 책상 용구 세트」
작가: 박성우



제13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국무총리상 「관광 포스터」
작가: 신 용호



제13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상공부장관상 「조명 기구」
작가: 임 장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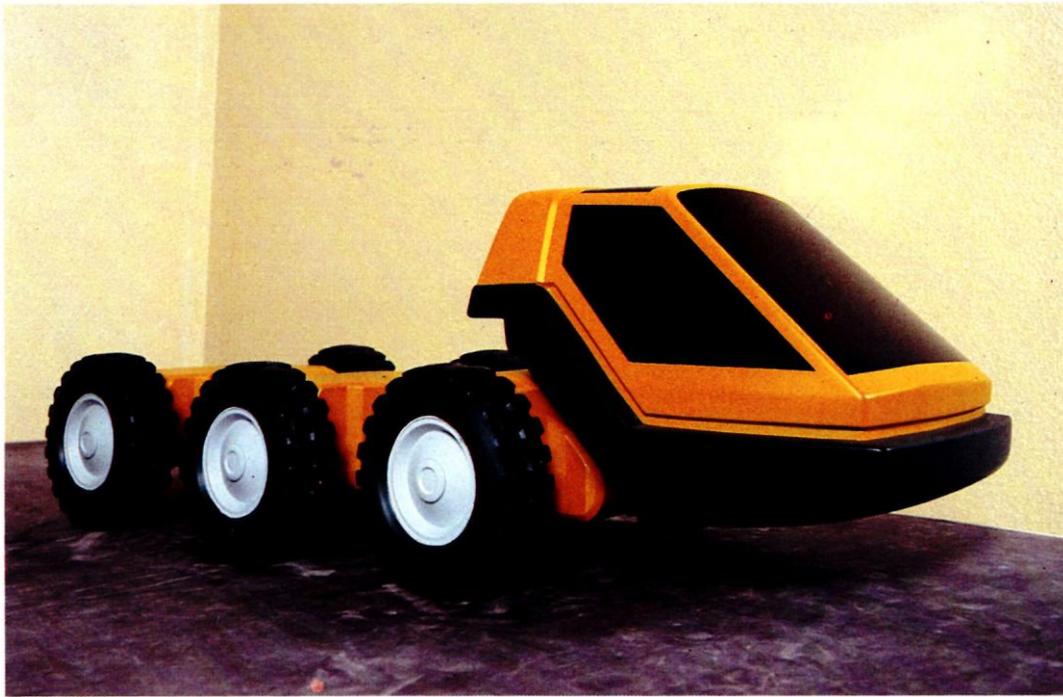
제13회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전 「기아 혼다 선전 포스터」
KDPC 이사장상 작가: 장 병석

TERA-VI

SPECIFICATION
Dimensions, Power, Deck System

BASIC FUNCTION
Laddercab, Flexframe, Expansion

APPLICATION
Construction, Emergency, National Defense



제 1 회 KSID 공모전
한국공업디자인상(최고상)
「다목적 소형 자동차」
작가 : 지 영환 · 구 성희

CITY-CAR DESIGN

famico

FUNCTION

SPACE UTILITY



제 1 회 KSID 공모전
우수상
「도시형 소형 자동차」
작가 : 박 민규



대한 산업 미술가 협회 주최
제 4 회 전국 공모전
최고상 (산미상)
「고려 볼트 (주) POP」
작가 : 송 경희 · 민 남례



대한 산업 미술가 협회 주최 제 4 회 전국 공모전 알파상 「하얀 전자 CI」
작가 : 이 광봉 · 이 우철

傳統工藝

金 聖 洙
淑明女大 工芸科 副教授

공예(工藝)란 말은 1888년부터 영어의 Arts and craft technology, 독일어의 Kunstge Werbe, 일본에서는 영국의 Industrial Arts 등의 역어(譯語)로서 사용하고 있다.

단지 회화(繪畫)나 조각(彫刻)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의 기술을 가지고 실용 목적이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다. 쓰임과 아름다움, 즉 용(用)과 미(美)를 겸한 뜻으로서 공예의 발전 단계는 재료를 생산하고 자유롭게 가공하는 기술의 발전 단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그 나라의 국토와 민족과 생활 풍습에도 깊은 관계가 있어서 국가에 따라 특색 있는 공예가 발달하고 있다.

공예품(工藝品)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기술(Technique)과 형태(Form) 및 장식성(Decorative)을 부여해야 하는 디자인과 아이디어를 요구하며, 공예가 어떠한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것이냐를 근거로 하여 공예를 종별하고 있다.



모델을 영국에서 따온 18세기 스칸디나비아 의자

공예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생기는 공예의 존재 양식이 결정되고 있는데, 귀족 공예(貴族工藝)와 대중 공예(大衆工藝)로 분리할 수 있으며, 종교 생활과 일상 생활을 대립시켜 종교 공예(宗教工藝)와 대중 공예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어떤 노동력과 도구로 만들어졌느냐는 점에서 기계 공예(양산 공예)나 사람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공예(일품 공예) 또는 미술 공예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중 공예(民衆工藝)란 말 중에는 그 지방의 물산(재료)을 이용하여 민중의 필요에 따라 무명의 공인(工人)이 반복·숙달된 기능을 주어서 단순한 손작업으로 동일형 제작의 것이 대량 생산되어 값싼 생활 용구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전통 공예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전통이란 세대적인 전수에 힘을 기울이고 역사적 또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선조들의 창조와 전승에 의하여 성장된 특질을 창조한 소



19세기 아르 누보(Art Nouveau) 시대 루이 15세식 전승 의자(프랑스)

산물을 올바르게 전승시킨 것을 전통이라 할 수 있다.

여하한 사회를 대상으로 창조한 소산물이 라 하더라도 민중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 토착화되고 이를 전승하고 창조하여 제작되고 있는 것이 전통 공예(傳統工藝)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외래의 우수한 문화 양식을 도입하였을지라도 전통 문화 속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사고력이 내재하고, 귀족을 위하거나 종교와 신앙을 위해 공예품이 제작되었을 경우에도 생활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은 선조들이 창조한 공예품의 세대적인 전수에 힘을 기울여 전승된 공예품이 전통 공예라고 할 수 있다.

전통 공예를 국가가 보호하기 위하여 기능 보유자를 인간 문화재로 지정하여 놓고, 이들로 하여금 제작된 공예품을 인간 문화재 작품이라고 하고 있다.

이들의 작품은 고도의 기술로만 제작되고 전승된 공예품이 인간 문화재 작품인지, 고도의 기술과 전통을 바탕으로 하여 시대성을 부여하고 재료 개발과 기술 개발을 같이 겸한 작품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선조 때부터 널리 사용되는 공예품이 현대 생활 공간과 생활 양식이 급변하는 현시점에서 생활에 적응되지 않고 용도가 희박한 것을 기능·기법으로만 전수된 것이 올바른 인간 문화재 작품인지, 이것이 전통 공예인지,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창작성을 부여하고 견고성·심미성(審美性)으로 재료를 개발하고 생활과 밀접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전통 공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예전대 한 작품의 용(用)의 목적은 전혀 생 각지 않고 한 작품의 형태에서 한 개의 미적 구상물로 공장의 노력만 집중되어 골동성(骨董性)을 조성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들 골동성적 공예의 가치는 이들 작

품이 만들어진 시대의 미적 가치와 기술적 가치가 병행된 주제가 되어야 진귀(珍貴)하고 아름다운 공예품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공예인(工藝人)이 참다운 미의식(美意識)에 눈을 떴을 때 비로소 공예가로서 자유로운 제작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공예가(工藝家)는 예술적(藝術的) 표현을 제작의 유일한 목표로 하고 한 개면 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의 생활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일품 공예(一品工藝)로서 예술적 가치가 결정된다.

동일한 형태와 동일한 문양으로 다작(多作)을 했을 때는 예술적 가치가 없는 상품으로 간주하게 되며, 누구나가 다작(양산 제작)을 했을 때는 과연 우리들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오늘의 공예가들이 제작하는 일품 공예는 대중의 생활에서 떠난 특권 계급에 있는 사람



원시 형태를 이용한 의자(19세기 British Museum, 런던)

들만이 사용하고 감상하는 귀족 공예와는 다른 측면에서 전공별로 재료 개발과 함께 기능과 기법을 연구하여 연마·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관전(官展)·개인전(個人展)·그룹전·공모전(公募展) 등을 통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민중을 대상으로 민예품(民芸品)과 기계에 의한 생산 공예품이 제작되고 있는 것이다.

민예품은 향토의 재료를 살려서 공인들의 반복 숙달된 단순한 손작업으로 동일형을 대량 생산하여 값싼 대중의 일상 생활 용구를 제작하며, 지방 특색과 생활의 바탕으로 오랫동안 되풀이하면서 제작되는 기술 전통으로서 미의식과 기법을 표현한 것이다. 즉, 민족의 정서나 인간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한 미의식의 소산이라기보다는 생활 형식(生活形式)의 한 표현으로 영원한 공예 양상으로서 수공예(手工芸)에 의한 생산 공예(生産工藝)로 대중에게 공급되고 있고, 기계에 의한 생



네덜란드 Stedelijk Museum에 있는 현대 의자



얇은 목판(木板)을 구부려 (Bending) 기법에 의해 제작된 20세기의 의자



원통목으로써 육중하게 직계상징으로 디자인 조 각한 의자 까메론 (15세기, British Museum 런던)



19세기 로코코 외형 장식형을 이용한 의자 (미국)

산 공예가 급증하여 시대 요구에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대량 생산이라는 것은 근대 대중 사회가 그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이것을 요구하며, 대중들은 평등권 가치로서도 요구하게 되며, (美)와 용(用)의 결합체로서의 공예 생산이 불가피하여 대중 생활의 모든 점에서 만족을 주지 않으면 안 되므로 공예품의 의장(意匠)은 규격화한 양산 체제의 청신한 디자인으로만 들어져야 한다.

판매와 생산에는 자유 경쟁이 뒤따르고, 경제·문화·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대중의 공예품 선택은 높은 수준이 되어 자기 생활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므로 디자인에 있어서나 품질에 있어서 연구가 거듭되어야 한다.

예술가가 아닌 대중의 입장에서 감각적인 디자이너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통역자로서 현대가 요구하는 공예의 올바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며, 전통 공예를 이해하여 전통을 바

탕으로 한 현대 공예(現代工芸)의 재발견으로 임해야 한다. 민족과 국가간의 시대성이 뚜렷한 생산 공예 디자인(Industrial Design) 중심의 형태로 현대 공예의 존재를 말하고 싶을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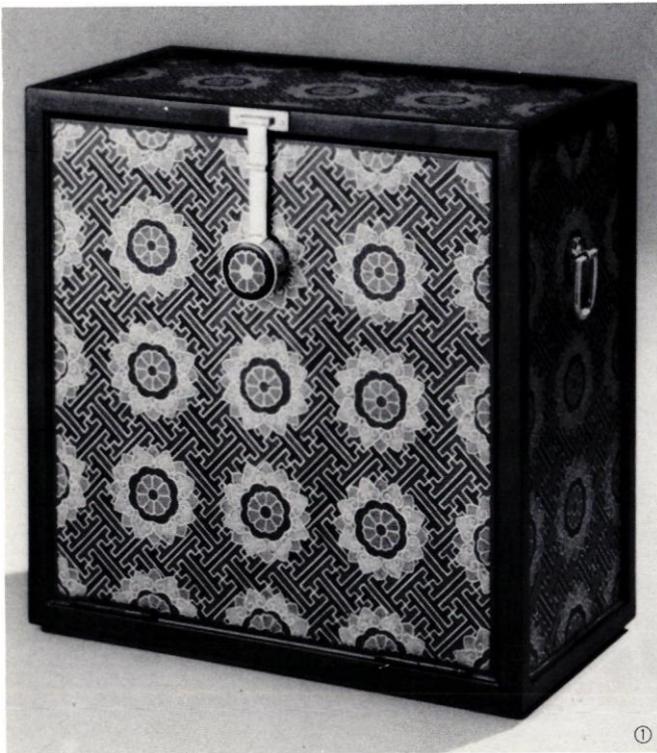
18세기 섭정 정치 때 중국의 문양을 일본인이 칠하여 제작된 캐비닛(앨버트 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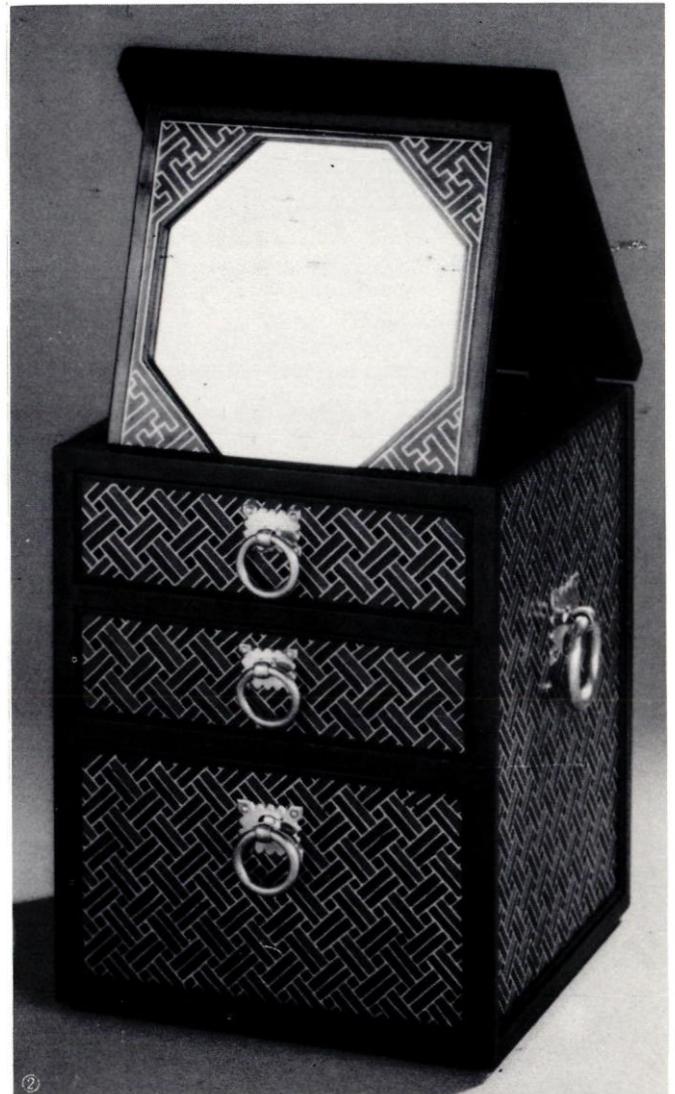
18세기 로코코(Rococo) 시대의
조각문양을 이용한 가구



르네상스 시대 프랑스에서 널리 알려진
장부이음의 가구



①



②

① 보석함
외당 문양과 귀자 문양을 이용한
목금속 상감(김 성수 작)
② 장신구함을 겸한 좌경
삼자리 문양을 이용한 목금속 상감
(김 성수 작)

Lacquer Pot is fading away.

사라져 가고 있는 漆器 항아리

姜 壽 華
慶熙大学校 産業大学 副教授

요즘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가고 있는 전통 문화재를 생각하고 발견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다. 특히 그것은 우리의 조상들, 즉 서민이나 양반이나 모두 즐겨 쓰고 필요로 하였던 항아리라는 그릇으로서 독과는 조금 다르다. 그리고 이것은 작기 때문에 부엌 같은 데서 간단한 음식물을 저장하여 먹고 양념을 담은 그릇으로서 무게가 있는 그릇이다. 그런데 요즘의 젊은 층은 아마 잘 모르리라고 생각된다. 시장에서 가끔 비슷한 것이 눈에 띄지만,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릇이다. 아마 이것은 현대 문명에 밀려난 소산일 것 같기도 하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칠기 항아리란 각자의 가정에 한 두 개 정도 남아 있는 집도 있으리라 생각되나, 그냥 무심히 보아 넘겼으리라 여겨진다.

漆器 항아리의 生産地

칠기 항아리의 생산지는 각 지방마다 있었으나, 특히 경기도 이천(利川) 지방이나 충청도 서산(瑞山) 지방에서 많이 생산되었다.



이천 지방을 중심으로 곤지암 및 여주(驪州) 등지는 다 사라지고 지금은 모두 모조품 공장으로 둔갑하였으며, 현재 서산 지방에서 조금씩 명맥을 잇고 있는 것 같으나 보잘 것 없이 차차 사라져 가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칠기 항아리는 생산비(주로 연료비)가 다른 그릇보다 많이 든다. 왜냐 하면 요즈음에 굽는 것은 보통 1000℃ 미만으로 굽지만, 원래의 칠기 항아리는 1250℃~1300℃까지 소성(燒成)한 자기(磁器)이기 때문이다. 유리질 자체도 솔일재를 발라 높은 온도(1300℃)에서 소성시킨 것이기 때문에 인체에 해로운 독소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요즈음 비슷하게 생산되고 있는 항아리는 독소가 있는 것이 많다. 이것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연단(鉛丹)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漆器 항아리의 製造過程

다음으로 이 항아리의 제조 과정을 생각하여 보자.

첫째, 이 항아리의 소지(素地: 뼈대)는 사토(沙土)라 하여 내화성(耐火性)을 지니고 있는 흙으로서 우리가 야산이나 들에 가서 땅을 파다 보면 돌은 돌인데 하얗고 잘 부서지는 흙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반죽이 되지 않으므로 점토(粘土)라 하여 논이나 들의 땅을 파면 찰떡같이 차진 흙이 나오는데 이것을 혼합하여 (사토: 점토= 3 : 5 또는 사토: 점토= 4 : 5 정도로 하지만, 흙의 성분 에 따라 다소 달라짐) 체에 걸러 앙금을 얹힌 뒤 이 흙을 천연 건조시킴으로써(수파법이라 함) 제토가 된 것을 일반 자기와 같이 물레 성형을 시켜서 깎고 건조시켜 1차 소성(800℃ 정도)하여 찻물이라는 유약(소나무 잎을 태운 재와 나무가 무성한 야산이나 솔밭의 빨갛거나 거무스름한 흙을 파서 앙금 얹힌 것과 4 : 6 또는 3 : 7의 비율로 혼합시킨)을 발라 장작불로 재래식 노버리 가마에다 약 1285℃ 이상 1230℃의 불로 소성시키면 검정 색이 나는 자색이 된다. (이 때 시유 당시 나무발의 흙에 따라서 색이 달라짐)

이에 반해서 요즘 나오는 항아리는 뼈대가 이 두 가지를 혼합하여 된 것이 아니다. 단미 소지라 하여 야산에 들어가면 진흙(빨간 흙)

을 파다가 (일반 흙보다는 화도가 높으며, 전자의 흙보다는 화도가 낮음) 그대로 수비(水飛) 건조시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다. 그런데 유약은 찻물이 아닌 진흙을 거른 물에다 연단(납을 태운 가루)을 섞어서 유약으로 사용하며, 소성 온도도 1000℃ 미만으로 700℃~800℃의 불에서 구워 낸다. 이 때 연단을 사용하는 이유를 보면, 연(鉛)은 그 자체가 광물 중에서 화도가 가장 낮아 보통 100℃에서도 녹을 수 있는 정도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흙물과 같이 혼합하여 소성시키면 이 혼합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

악덕 상인들은 고도로 발달한 현대 문명에 힘입어 원가가 싸게 드는 이 방법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현대 문명의 유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유산인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이 사라져 가고 있는 우리 조상들의 고유한 맛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우리 후세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된다.

韓國의 傳統紋樣 <25>

山景紋 (I)

<蒲柳·葦蘆水禽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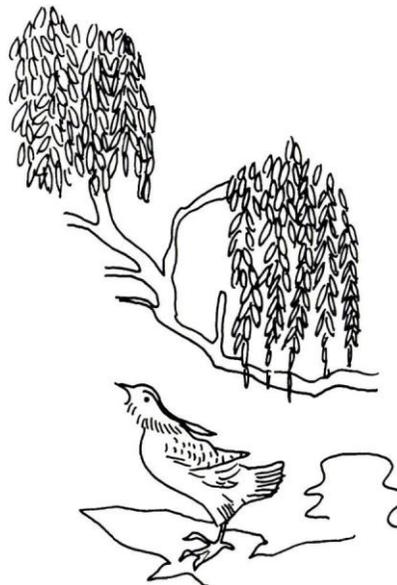
國立中央博物館 學藝研究室
林 永 周



螺鈿漆器 蒲柳水禽紋箱子
(10~11세기경, 國立博物館藏)



나전칠기 蒲柳水禽紋箱子
(10~11세기경, 國立博物館藏)



青磁象嵌 蒲柳水禽紋淨瓶
(12세기, 國立博物館藏)

우리의 옛 시나 그림을 볼 때 옛 선비들이 녹양방초(綠楊芳草)와 들국화(野菊) 및 물새를 즐겨 소재로 삼은 것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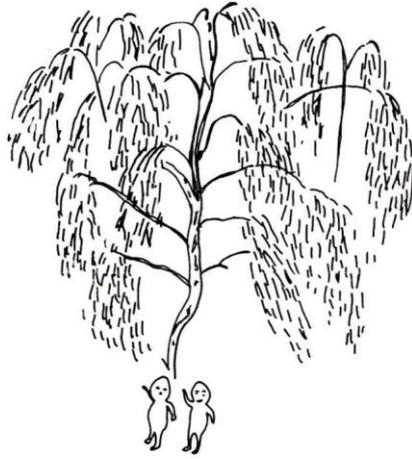
푸른 버드나무와 들국화, 그리고 온갖 들꽃들은 굳은 절개와 선비의 기상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옛 선조들이 얼마나 자연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즐겨 살기를 소망하였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충절과 예의를 존중하는 사상은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생활 속에서 밀방탕을 이루어 왔던 것이며, 고려 시대나 이조 사회에서는 독특한 한국 사상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으로서 그 시대의 도자기(陶磁器)나 금속 공예(金屬工藝)·목기(木器) 등의 미술품에서도 이러한 사상을 무늬로써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사상을 도교(道敎)나 유교(儒敎)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나 이것은 도교나 유교에서만 아니라 일찌기 불교의 이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고유의 산수관(山水觀)이나 자연 숭배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일찍부터 자연적인 혜택을 많이 받아 온 나라이다. 기후는 상쾌·온화하고 토지는 비옥하며, 산수(山水)가 좋아 옛부터 문인(文人)·재사(才士)가 많이 나온다는 중국의 옛 기록도 있지만, 그토록 차분하고 소박하며 담백한 미술이 나온 것도 그 영향이 컸으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통일 신라 시대 이전까지만 하여도 북방계 문화와 중국을 통하여 들어온 불교 문화와 도교 사상, 그리고 서방(西方)에서 유전된 서역 문화(西域文化) 등의 전래와 함께 그 시대의 정치·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서는 하



靑磁象嵌 蒲柳童子紋梅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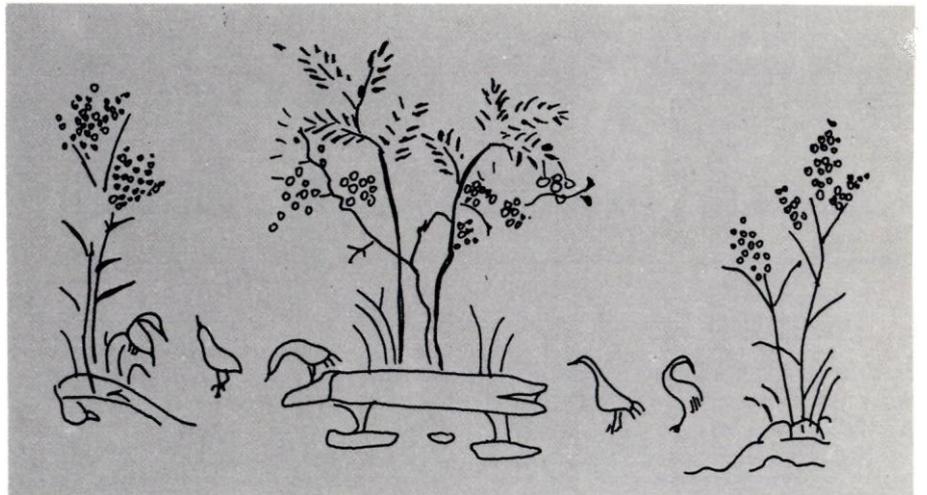
靑磁象嵌 葦鶴紋大碟
(11~12세기, 國立博物館藏)

나의 통일성 있는 문화의 기틀이 미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차차 민족적 종교로서 호국 불교(護國佛敎)의 이념 아래 융합되게 되는데, 고려 시대에 와서 13세기 중엽부터는 이러한 정신 문화적인 면에서도 통일성을 보여 주게 되며, 이 때에는 이미 한국 특유의 전통 문화의 성립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사회적인 면으로도 새로운 시대로 대두하였지만, 특히 문화 면에서는 독창적인 특성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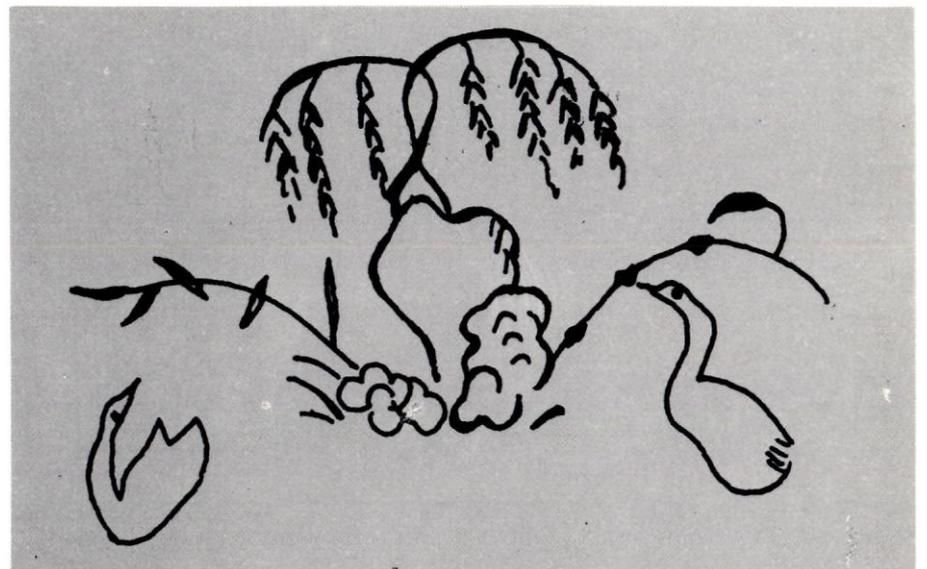
예를 든다면, 그 당시에 중국 송대(宋代)의 도자기 공예는 고려 도자(高麗陶磁)의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지만, 중국 자기의 유려한 문양(紋樣)이라든지 기교적인 형태와는 달리 차분히 가라앉은 가을 하늘색을 배경으로 무늬의 소재도 연화문(蓮花紋)·모란문(牡丹紋)·국화문(菊花紋)·운학문(雲鶴紋)·운봉문(雲鳳紋) 또는 이름 모를 들꽃 무늬나 포류수금(蒲柳水禽)·위로수금(葦蘆水禽)·양류수금(楊柳水禽)·송하탄금문(松下彈琴紋), 그리고 포도동자문(葡萄童子紋)·초충문(草蟲紋) 등 극히 회화적(繪畫的)이고 사색적이며 당시 선비들의 맑고 높은 기품과 품격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 배경은 역시 불교 문화에 의한 것이나 신라 시대의 귀족적인 것과는 달리 꺾 대중적인 것이며, 어떠한 의식(意識)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연과의 대화를, 또는 속세를 떠나 청아(清雅)한 선경(仙境)을 동경하는 고려인(高麗人)의 높은 기개에 탄복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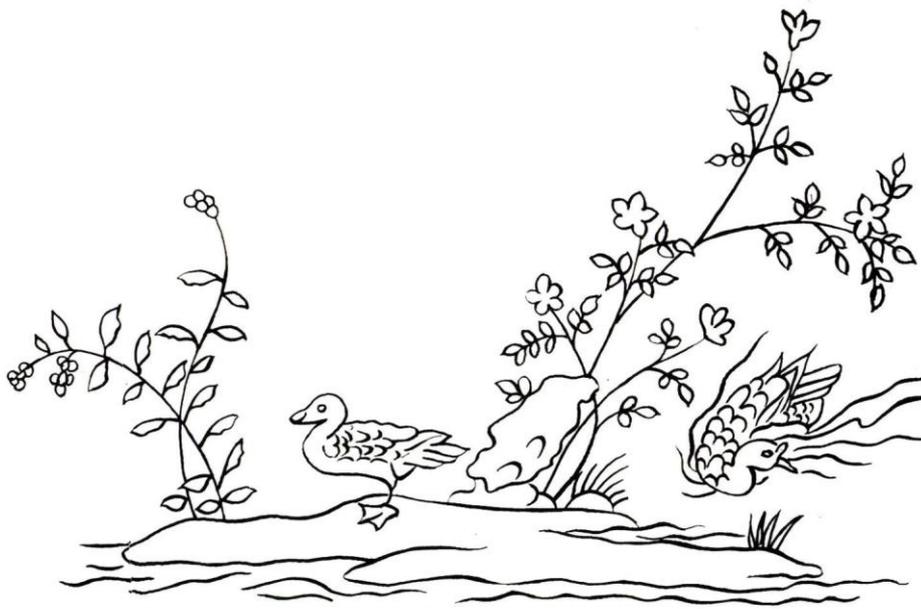
어느 민족에서 이렇듯 경건하고 성스럽고 고귀한 민족성을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과연 그 민족에 그 예술인 것이다.



靑磁象嵌 蒲柳水禽紋瓶
(12세기, 國立博物館藏)



靑磁象嵌 蒲柳水禽紋大碟
(11~12세기, 國立博物館藏)



靑銅銀入絲 蒲柳水禽紋淨瓶
(11~12세기, 국립박물관장)



靑磁象嵌 葦蘆紋瓶
(11~12세기, 국립박물관장)



靑磁象嵌 蓮塘童子紋大碟
(12세기, 국립박물관장)

전술한 바와 같이 고려 시대 초기 이전에는 삼국 시대부터 흘러내려오는 미술 양식을 그대로 이어왔으나 차차 독자적인 개성에 눈 뜨기 시작하였으니, 모든 불교 미술과 공예에도 새로운 풍치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제야 비로소 참다운 한국적인 문화가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장식 무늬로서의 무늬, 즉 연화 무늬·모란 무늬·당초 무늬 등 도식적(圖式的)인 무늬들, 또는 용(龍)·봉황(鳳凰) 등 불교의 상징적인 요소는 차차 사라지고 강변이나 호숫가의 버드나무나 갈대·들풀, 그리고 잔잔히 흐르는 물결 위에 떠도는 물새 두세 마리, 또는 기러기 등 철새들을 자연스럽게 펼쳐 놓은 풍경화적인 무늬가 나타나고 있다.

고려 시대 청동은입사 포류수금문 정병(靑銅銀入絲 蒲柳水禽文淨瓶; 11~12세기경, 국립중앙 박물관 소장)은 고려자기의 상감 기법(象嵌技法)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며, 불교적인 금속 공예로서 이러한 무늬가 시문(施文) 되기로는 최초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넓은 호수나 강변에 갈대가 우거진 숲을 이룬 작은 섬을 볼 수 있으며, 강가운데에는 작은 거룻배 두세 척에 어부 또는 낚시꾼으로 보이는 인물이 한 사람씩 타고 있는데, 그 주위에는 푸드득 날아오르는 물새와 유유히 노니는 오리·물새들, 그리고 떼지어 날으는 기러기떼가 자연스럽게 그려져 있다.

이러한 무늬가 도자기나 금속 공예에 나타나기 이전에는 칠기(漆器)에서 먼저 쓰여졌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예로서 고려 시대 나전칠기 포류수금문 상자(螺鈿漆器 蒲柳水禽



靑銅銀入絲 蒲柳水禽紋淨瓶
(11~12세기, 국립박물관장)

文箱子; 10~11세기경, 국립 중앙 박물관 소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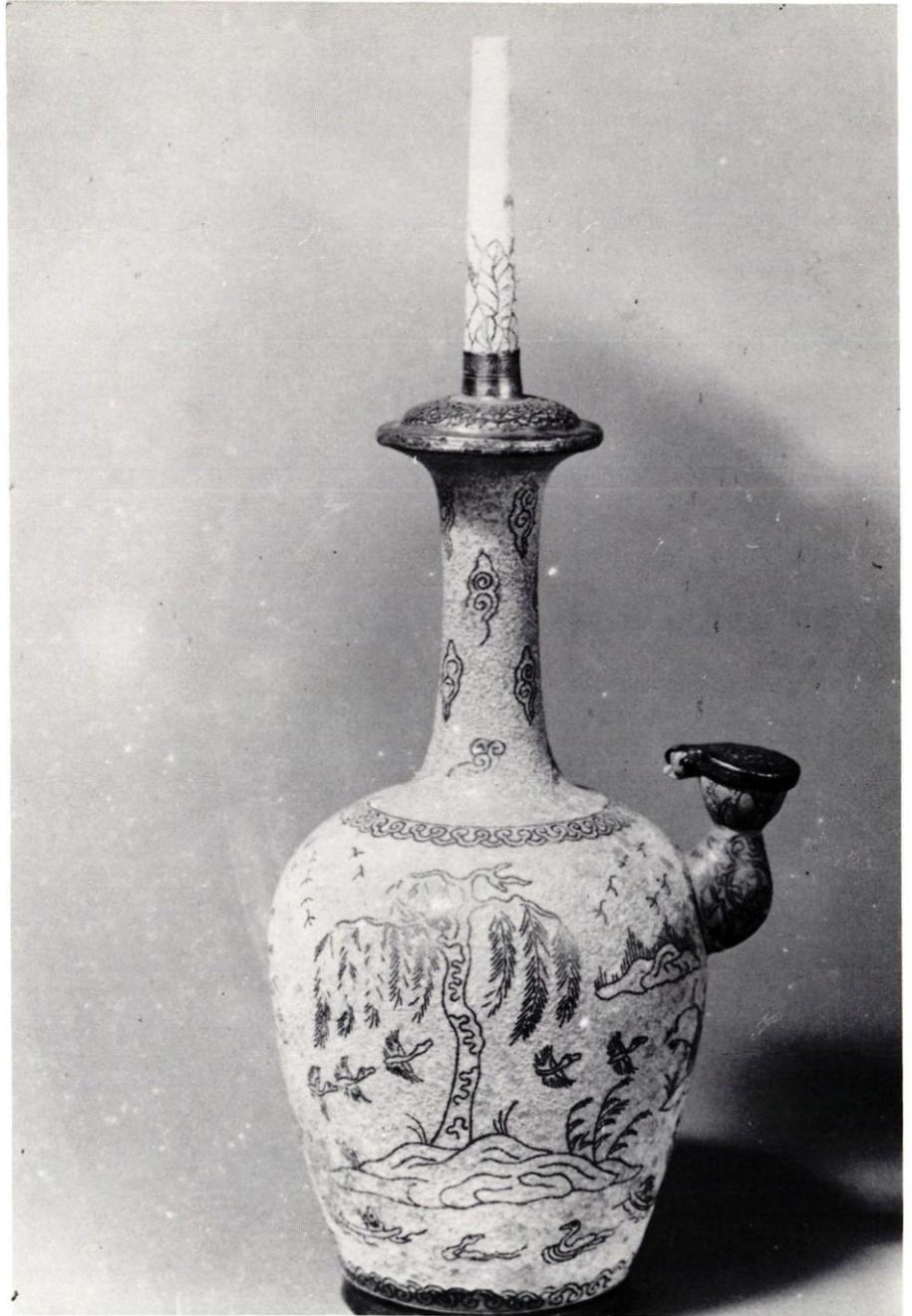
여기에서 볼 수 있는 풍경 문양(風景紋樣)은 길게 칭칭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와 갖가지 잡풀, 갈대가 우거진 호숫가에 각종 물새가 수초(水草) 사이로 노닐고 있고 하늘에는 철새들이 쌍쌍이 날고 있는 매우 회화적인 그림이 나타나고 있다. 약간 도식적인 맛도 없지 않으나 매우 자연스럽게 구성 배치하고 있으며, 독특한 정취를 풍겨 주는 것이다.

이러한 풍경 무늬는 고려인의 독특한 정신 세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그네들의 시정(詩情) 어린 생활면을 보이고 있는 버드나무와 동자(童子), 두 마리의 학(鶴)과 버드나무, 또는 물오리와 갈대 등의 문양이 정병(淨瓶)을 비롯하여 수주(水注)·발(鉢)·항아리·화분 등에 점차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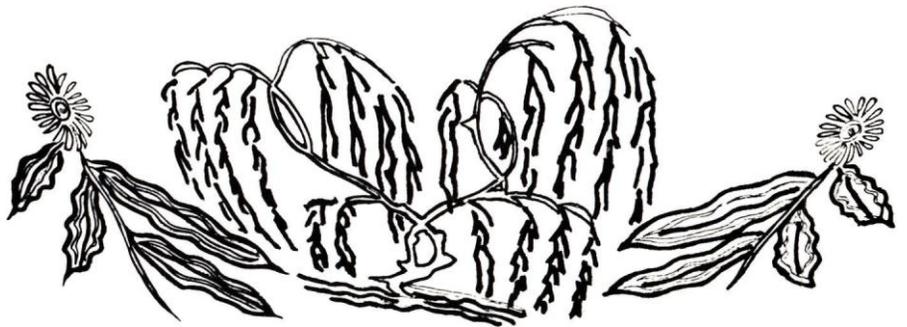
나중에는 들국화 또는 연꽃 무늬 등과 같이 복합된 문양으로 나타나다가 점차 이러한 소재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문양 소재는 그 명맥이 조선 왕조 시대 초기에 와서는 분청사기(粉靑沙器)와 초기 상감백자(象嵌白磁)에 이어졌으나 잠시 후 순백자(純白磁)의 등장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마는데, 분청사기에서는 몹시 퇴화된 매병(梅瓶)에서나 수병(水瓶) 등에서 간혹 연꽃 무늬 등과 함께 복합되어 나타나고 있고, 초기의 흑상감(黑象嵌) 백자에서는 매우 생략된 추상적인 표현의 버드나무 무늬가 나타나지만 결국 자취를 잃게 되며, 18세기경의 청화백자(靑華白磁)에서는 소위 세한사우(歲寒四友)라 일컫는 매(梅)·난(蘭)·국(菊)·죽(竹) 등 회화적인 경향에 밀려나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의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



靑銅銀入絲 蒲柳水禽文淨瓶
(고려 시대, 12세기, 국립박물관장)
높이 37.5cm, 지름 12.9cm



靑磁象嵌 柳菊紋壺
(국립박물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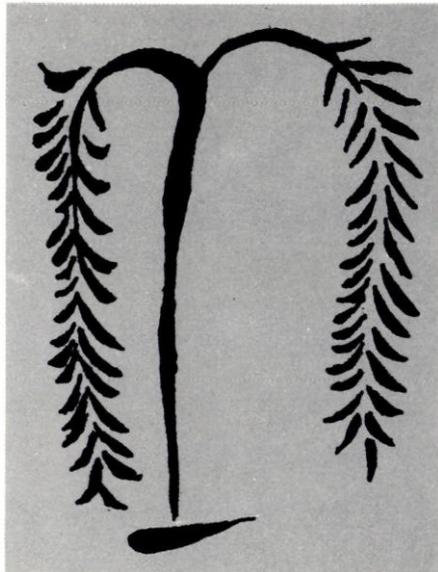
靑磁象嵌 葦蘆水禽紋淨瓶
(12세기, 국립박물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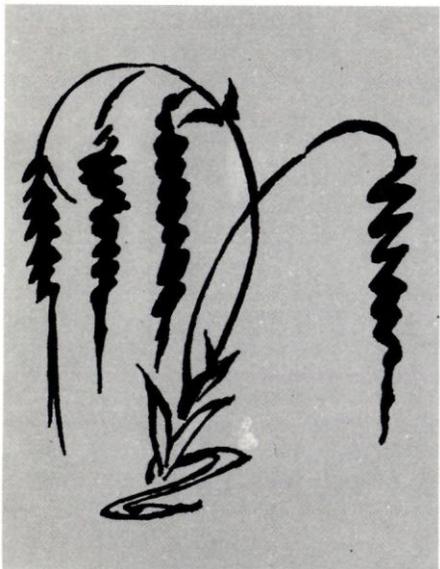
靑磁象嵌 葦蘆紋瓶
(12세기, 국립박물관장)



靑磁象嵌 葦蘆紋瓶
(11~12세기, 국립박물관장)



繪靑磁蒲柳紋瓶
(국립박물관장)



繪靑磁蒲柳紋瓶 (국립박물관장)



粉靑沙器鐵畫鳥紋瓶 (朝鮮王朝時代 15세기, 국립박물관장)

기까지의 미술품을 통하여 가장 한국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문양의 하나로서 고려 시대의 청동기·철기·도자기에 나타나는 포류수금문·위로수금문 등 풍경화적인 문양이 갖추고 있는 내면적인 특성과 사상적인 배경,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한국적인 맛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한국 미술사 가운데 문양사(紋樣史)가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은 주지된 사실이다. 한국 미술에 나타나는 무늬는 대개 30여 형식에 500여 종을 헤아릴 수 있으며, 점수(點數)로 보아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어떠한 무늬가 과연 순수한 한국적인 무늬냐 한다면 그리 쉽게 가려내기가 힘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일은 극히 무모한 일인 것이다.

왜냐 하면 문양은 조형 미술(造形美術)에 있어서 한 가지 구성 요소로서 설령 외래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한 특정한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다듬어지고 변천하는 까닭에 결국 고유 문화 속에서 융화되어 버림으로써 전통적인 양식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한 풍경 무늬는 가장 한국적인 풍물(風物)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며, 여기에서 민족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느껴 볼 수 있는 것이다.

요즈음과 같이 민족적 특성이라든가 민족적 주체성 또는 전통성이 아쉬운 때가 없다. 그것은 비단 문화 예술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부각됨으로써 더욱 그러한 것인 만큼 우리나라의 산업·예술·학문 등 각 분야에서 좀 더 고유 문화의 발견에 노력하고 그 환경을 보존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덴마크의 社会保障制度와 身体障碍者들을 위한 特殊施設

코펜하겐에서 발간되는 『Denmark Review』
54호에서 발췌·번역한 글임. [편집자 주]

일반적으로 덴마크는 사회 보장 제도가 잘 된 복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불구자나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정상적이며 안락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 복지성은 국민 건강이나 교육 사업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신체 장애자나 노약자들을 위한 복지 시설을 살펴보면, 국가는 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특수 시설을 마련해 주고 있다. 모든 문은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게끔 건조하도록 국가 건축법에 규정하고 있고,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개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정부가 보조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없는 신체 장애자들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집합적인 시설을 갖춘 '보호 아파트'를 세워 이들을 수용하고, 또한 요양소를 건립하여 이들을 진료해 준다. 그리하여 매우 포괄적인 훈련과 재훈련 시설을 신체 장애자들에게 제공해 줌으로써 이들이 다시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신적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이들 신체 장애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장이나 사무실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특별법은 신체 장애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공공 기관에 이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되도록 책임지고 알선해 준다.

그리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신체 장애자들을 위해서는 보호 작업장을 따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신체 장애자들이 별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전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심한 신체 장애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불구 정도에 따라 불구자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체 장애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여 생활해 나가든 불구자 연금을 받든 이들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보조는 신체 장애자의 재정 상황에 관계 없이 지방 당국이 대부분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시각 장애자는 특수 타자기나 테이프레코더 등에 의한 기술적 도움을 받고, 청각 장애자는 보청기나 확성기 또는 빛

신호 등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 또한 보행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휠체어나 특별 번기, 정형 신발, 원격 제어 고안품과 개인의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보조해 주고 있다. 그리고 독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갑작스런 병이나 돌발 사고 때 대비키 위한 경보 장치를 가설해 주기도 한다.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이러한 기술 원조의 활용으로 신체 장애자들을 위한 설비와 보조 기구들을 생산하는 특수 산업이 크게 번창하고 있다. 보청기 산업의 발달이 그 한 예인데, 덴마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보청기 수출국 중 하나이다.

덴마크의 사회 보장 제도와 신체 장애자들을 위한 특수 시설의 운용 실태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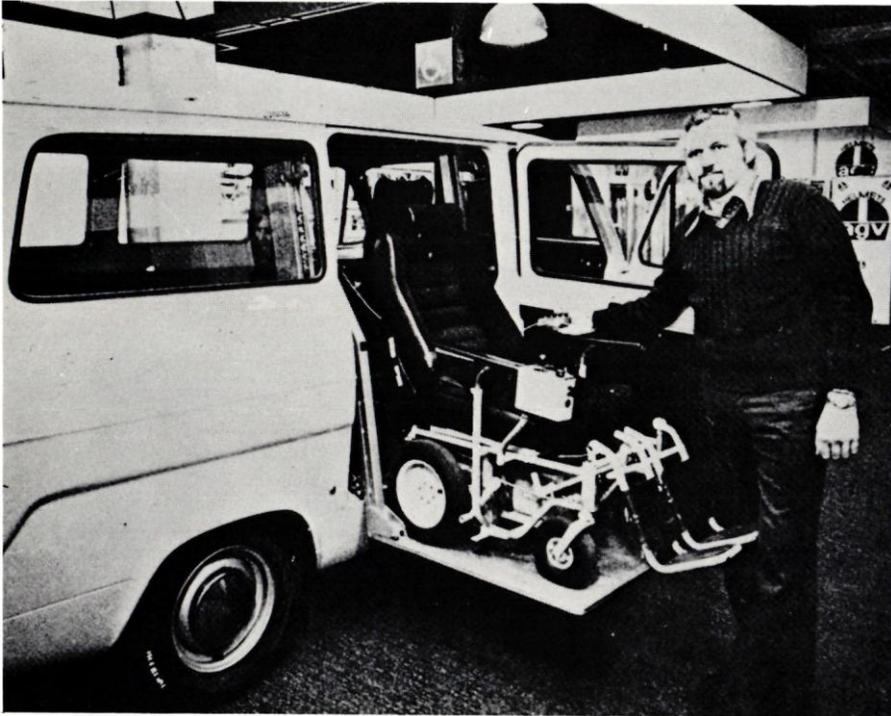


신체 장애자들을 위해 건물이나 시설물들의 출입 사인을 나타내는 국제적인 심볼 디자인이다. 이 디자인은 1969년 신체 장애자들을 위한 여러 나라의 기구들이 모인 한 작품들 중에서 뽑은 수상작이다. 수상자는 덴마크의 디자인 스쿨 여학생 Susanne Kofoed이며, 그녀는 이 작품의 판권을 이들 기관에 기증하였다.

이 심볼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 계속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 여학생이 자기 작품의 판권을 등록하여 그 권리를 주장했었다면 지금쯤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지체 부자유를 자동차로 해결한다

오늘날 덴마크의 많은 지체 부자유자들은 직장에 갈 때나 쇼핑을 할 때, 또는 친



구들을 방문할 때 그들의 신체에 맞게끔 자동차를 개조하여 사용해 왔고, 그들의 직장 근처에 따로 주차장을 갖고 있다.

신체 장애자들은 교통 법규를 위반해도 벌과금을 물지 않으며, 그들의 자동차나 동력 휠체어에 무선 전화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해 줄 법안을 의회에서 심의중에 있다.

지체 부자유자들이 직접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얻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자동차를 그들에게 편리하도록 개조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코펜하겐에 있는 Mogens Gudmundsen 공장에서는 임상 의사의 자문을 받아 자동차를 개조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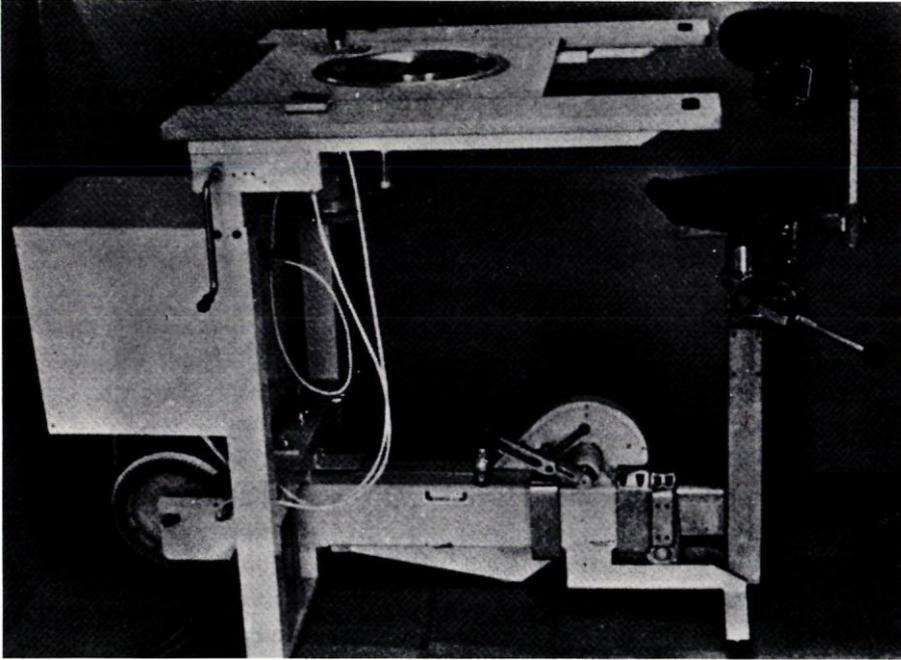
그런데 상해로 인해 신체 불구가 된 일부 환자 가운데는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도 있으나, 그렇지 못한 환자들은 처음부터 운전 훈련을 시작하여 보통 6개월에서 18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훈련을 마쳐야 비로소 운전 면허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때에야 이들은 비로소 일반 자동차 운전사가 가져야 하는 기술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가정용 가구 및 공공 기관용 가구

휠체어에 의지하여 책을 읽거나 글씨를 써야 하는 지체 부자유자들을 위해 덴마크의 10여 개 이상의 생산 업체에서는 경사진 책상이나 등을 견고하게 받쳐 주는 의자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가구 제조 업체들은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가구의 시장성을 개척하는 데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가구들은 생산 능력이 영세하므로 외국의 주문에도 충분히 공급해 주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훈련을 위한 보조물

전문가들이 작업과 생활을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한 시설물을 만들 때, Ropox ApS는 공립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나 국외에 있는 기관 및 병원에서 널리 사용하는 보조물들을 시판하고 있다.

Ropox의 보조물은 특히 재훈련 작업 분야에서 포괄적이다. 이 회사가 제작한 유연성 있는 책상과 버팀물의 도움으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환자들은 바느질·톱질·줄질·구멍 뚫기·회전 등과 다른 많은 실용적인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설비는 병원이나 요양소에 등록되어 있는 분명하고 실질적인 문제에 적응되도록 에르고 임상 의사와 물리요법 학자의 협력 아래 고안된다.



신체 부자유자를 위한 부엌 계획

모든 형태의 장애는 그 나름대로 특수한 문제를 만들어 낸다. 일상 생활에서 이 문제들은 부엌에서 야기되기도 한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만 할 때, 식사 준비는 어려울 수

도 있고 때로는 위험스럽기까지 한다.

Winthers Byggecenter A/S의 총지배인인 Aage Winther 씨는 지체 부자유자들이 활동하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부엌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임상 의사·지체 부자유자·

기술자들과 1년 이상 연구하였다.

이 기구는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류우머티스나 기타 다른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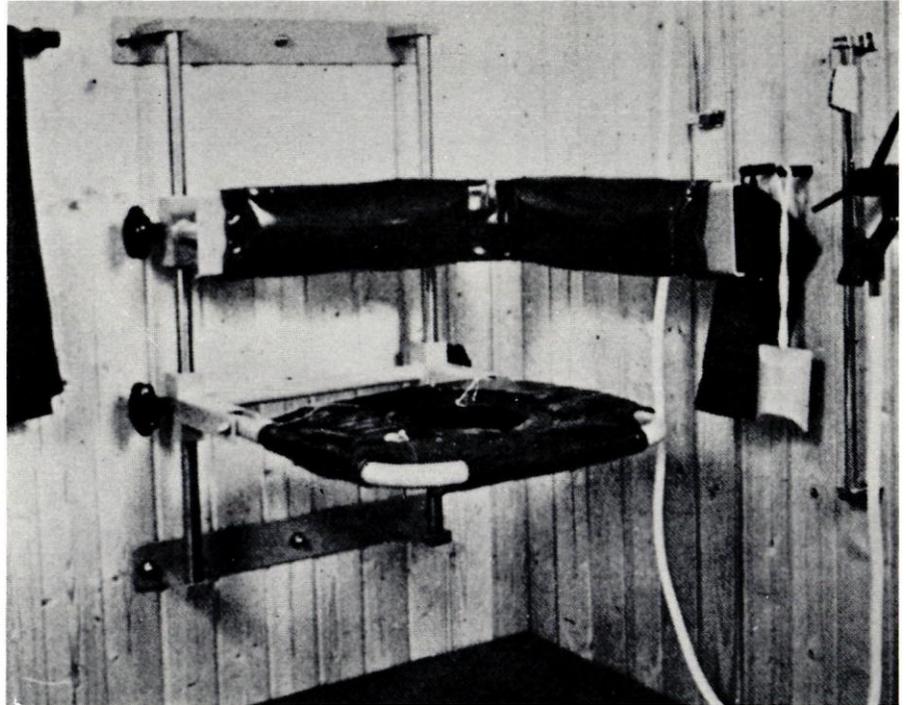
System Flex(시판시 사용되는 이름)의 모든 찬장이나 진열용 선반은 거의 모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높이에 놓여져 있다. 작업대도 알맞은 높이에 설치되어 있으며, 표면에서는 잘 얼질러지지 않고, 선반과 같은 것은 미끄러지지 않는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손잡이나 부속품은 힘들이지 않고 복잡한 조작 없이 간단히 열 수가 있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다림질판이나 여분의 작업대와 다른 부분들도 수평으로 정렬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 는 일반 가정의 부엌과 다르지 않으나, 사용자 모두에게 적합하도록 배열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 하면 각 부품들은 모두 표준 규격이며, 다른 사람이 사용할 때는 배치를 쉽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욕탕의 보조 장치

Dansk Pressalit에서는 지체 부자유자를 위해 디자인된 조정 세면 대야 및 Shower 의자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이 의자는 사용자가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Shower 의자의 시트와 등받이를 각각 따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선반반이로 벽에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게끔 고안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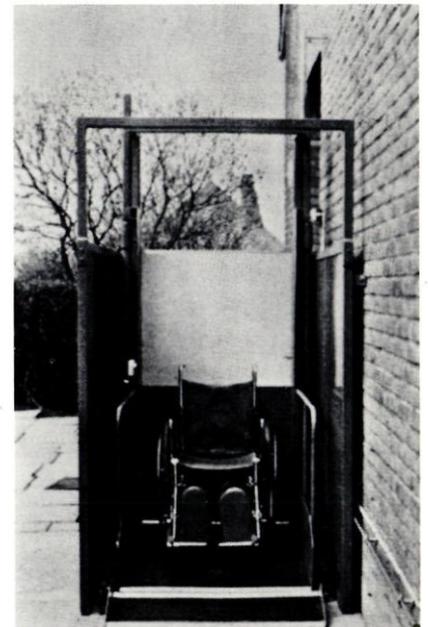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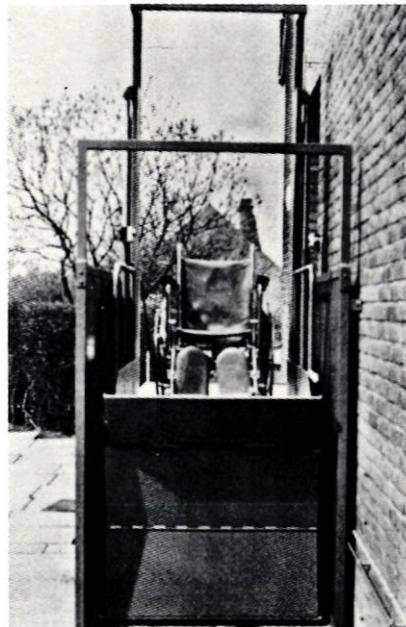


건물의 안팎

덴마크 주택 공사는 1972년에 지체 부자유자들이 출입하고 활동하는 데 아무런 장애를 느끼지 않도록 공공건물을 건축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발표하였다.

덴마크의 Lifton A/S회사는 휠체어를 들어올리는 기계를 개발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안전책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현존 건물들의 시설을 염두에 두고 디자인된 것들인데, 1972년 이전에는 대부분의 건축가들이 소홀하게 다루었던 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의 가격은 너무 비싸서 대부분의 일반 가정에서는 설치할 수가 없으므로 Lifton 회사는 특별 엘리베이터 설치 방법을 고안했다. 이 특별 엘리베이터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환자를 수직으로 1.5미터의 높이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일인용 단위로 고안되어 있다. 이 엘리베이터는 어느 곳에서든 움직이고 세워 놓을 수 있다.



편안한 자세가 일의 반을 좌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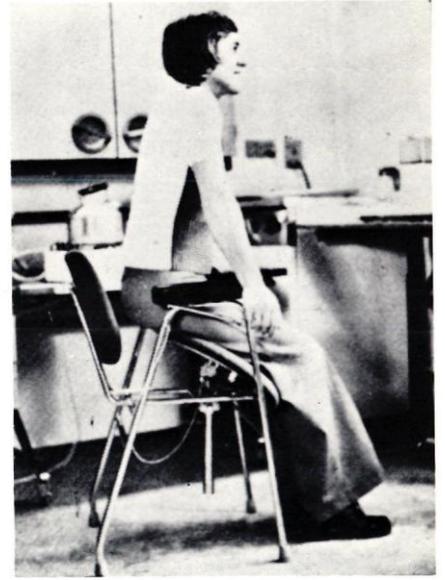
모든 장애는 각기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다. 한 가지 공통된 문제는 신체 부자유자들에게 집이나 직장에서 앉기에 편리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며, 의자는 이들의 특별한 요구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조해야 한다.

버어먼드 라르센(Vermund Larsen) 회사는 40년 이상 특수 의자를 생산하고 있다. 사무실이나 작업용의 정상적인 의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디자인이 임상 의사의 기술 지도를 받아 제조되고 있다. 이 생산 모형들은 광범위하게 의학적으로 고안된 용구들이라는 점에서 유용한데, 이 용구들은 신체 부자유자들의 보조용이나 회복용으로 대량으로 소모되고 있다.

신체 부자유자들을 위한 의자의 표준 디자인도 마련되어 있다. 버어먼드 라르센 회사는 특수 용도에 따른 one-off 의자뿐만 아니라 배나 기관차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의자, 병원이나 이의 치료를 위한 이동성 표준

작업 의자를 제작하고 있다.

경사진 의자 받침과 약한 팔을 위한 부분적 버팀대는 신체 부자유자들이 편안하게 앉도록 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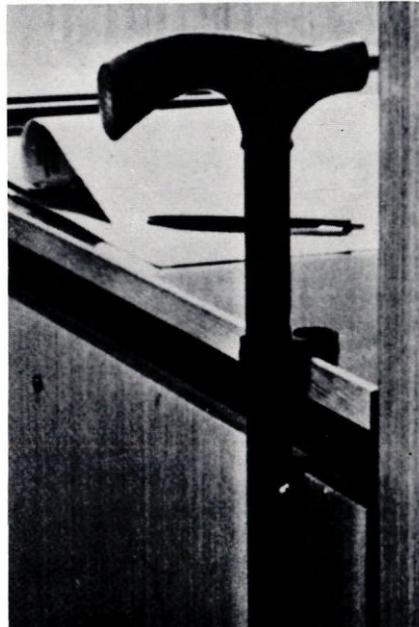


의자 밑받침이 기울게 되어 있어 팔이 약하여 일어서는 데 불편한 환자에게 알맞게 제작된 것이다.



버팀 집게

지팡이나 목다리는 많은 신체 장애자들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보조 기구이다. 그러나 이들 신체 장애자들이 앉고자 할 때나 잠시 두 손을 사용하고자 할 때 지팡이나 목다리는 땅바닥에 떨어진다. 이 때 작은 고리가 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해 준다. 플로그(Flog)라 불리는 이 고리는 가볍고 탄력성이 있으며, 의자나 책상의 밑면에 부착시켰을 때나 가게 계산대의 편편한 표면에 걸고리로 걸었을 때 목다리를 견고하게 꼭 매달아 놓는다.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 주는 지팡이 꽃이.





조절 가능한 전기 침대

Ejnar Jensen & Søn A/S에서 제작 판매하고 있는 전기 침대로서 환자 자신이 침대의 높이와 각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게 고안되어 있다.

덴마크의 사회 복지성 관리들은 신체 불구자들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가구와 기구들이 환자에게 크게 도움이 되므로 연금 지출이 절감되고 가정에서도 환자의 정신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침대를 겸한 의자

진료소에서 마음대로 조절하며 사용할 수 있게 고안된 침대로 강철관으로 된 받침판 위에 견고한 매트리스가 부착되어 있다. 이 침대는 자세를 바르게 교정해 주는 데 사용되는 것으로 E.C. Hospitalsinventar A/S가 도입한 것이다. 이 침대는 환자를 편하게 해 주기 위한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근육 긴장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최근 이 회사는 가벼우며 접을 수 있게 고안된 Sit-Well의자를 제작하여 시판하였는데, 이 의자는 운반하기에 간편하며 보기도 좋은 소형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노인병 회관 건립 계획

건축 기사들의 지도적인 덴마크 회사는 최근 디자인 경쟁에 참가하고, 서독 하이델베르크 근처의 약 3백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봉사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노인병 회관을 설계하기 위한 초청을 받았다. 고 아르 야콥슨(Arne Jacobsen) 박사의 동료들에 의해 설립된 디싱 웨이틀링(Dissing+Weitling) 회사는 서독에서 일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그런데 노인병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 계획한 건물들은 새로왔으며, 최초의 겨냥도가 그려지기 전에 많은 탐구가 필요하였다.

그 계획에는 광범위한 치료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회관에는 5백 개의 병실을 갖추고 재훈련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이 회사의 계획은 다음과 같은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서는 모든 형태의 진단을 실시하기 위해 구비된 임상 병실(외래 환자의 진료소)인데, 이 병실이 완성되면 240개의 병실을 갖추게 된다. 이 곳은 진찰을 위해 환자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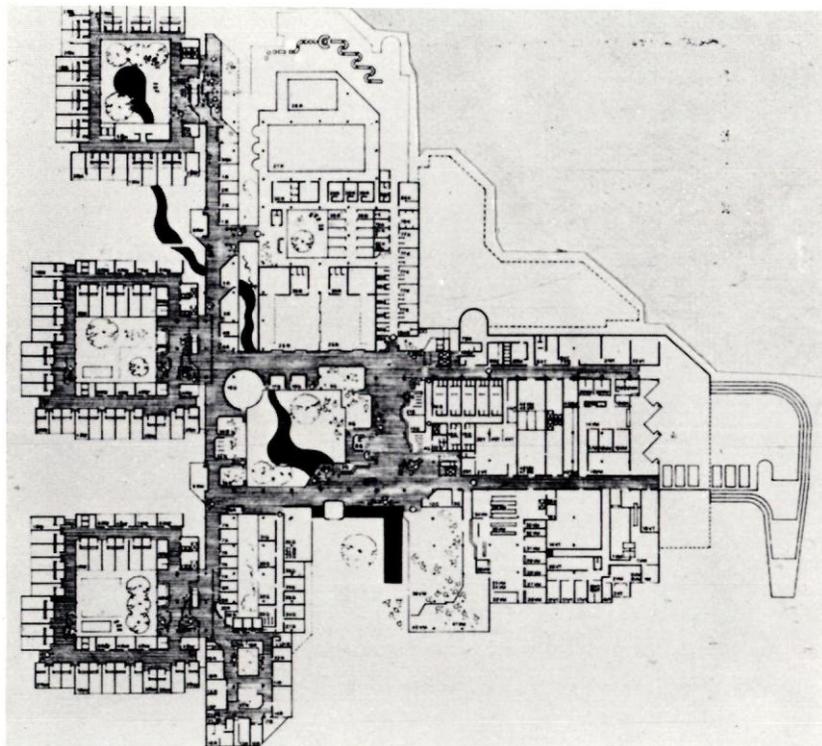
맞이하게 된다.

두 번째 부서는 재훈련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고의로 병원의 분위기를 떠난 매우 다른 분위기에서 250명의 환자들을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어떤 환자들은 작고 독립적인 플랫폼 주택에서 거주할 것이고, 다른 환자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조력이 주어질 것이다.

이 두 구역은 매점(간이 식당)과 극장을 갖춘 중앙의 지역과 연결되고, 또한 도서관과 작은 음식점, 강연장과 맨스홀로 쓰일 음악실과 체육실을 포함한 다른 오락 시설들과도 연결될 것이다. 이 부서들은 50m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으며, 연결 복도에는 작은 휴식 장소가 20m의 간격으로 마련될 것이다. 건물의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의 최대 거리는 140m이다.

치료 부서에서는 환자들의 편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디싱 웨이틀링 회사는 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덴마크 병원과 치료 센터에서 밀접한 연구를 한 바 있다.

현존 건축물들과 비교하여 볼 때 이 회관은 서어비스나 치료 수준의 어떠한 감소 요인이 없어 종전과는 달리 보다 적은 임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안이 짜여져 있다.



디싱 웨이틀링의 노인 회관 설계도

産業 디자인의 現實과 展望

郭 元 模
中央大 工芸学科 教授

우리 나라의 산업은 지난 몇 년 동안 정부와 기업 경영인들의 의욕적인 노력과 추진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고,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지도 벌써 2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 4 차 경제 개발(1977~1981)을 추진중에 있는 우리는 중화학 공업 입국으로 경제 발전과 수출 증대로 국가 번영을 회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아직도 우리는 과학 기술 및 공업 기술이 완속되지 못한 원인도 있으나 제품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산업 디자인에 대한 기업 경영인들의 현재의 인식이 미흡한 상태이며, 아직도 대부분의 메이커들은 모방이 아니면 수입국의 바이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 입국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현실을 시급히 시정하고 해결하여야 하겠으며, 장기적 안목에서 수출 상품의 질적 개선책을 세워 해결할 때 상품 고급화가 이루어질 것이며, 수출 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산업 디자인 교육의 현실과 방향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산업계에 비하여 산업 디자인 교육은 본체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품의 생명이 디자인에 달려 있으며, 기업의 이익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단 하나의 산업 디자인 학과도 설치되어 있지 못하고, 몇몇 응용 미술학과나 공예학과 등에서 3학년부터 전공별(산업 디자인 전공·공예 전공·시각 디자인 전공)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것도 주로 실기 교육에 국한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산업 디자인의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유능한 산업 디자이너의 배출을 바란다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전문 대학에 산업 디자인과가 몇몇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문 대

학의 산업 디자인과는 실기 위주의 단기 집중 교육이기 때문에 정규 대학과 같은 교육 목적이 아니므로 유능한 산업 디자이너의 양성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정규 대학에 산업 디자인 학과가 있어서 당초부터 산업 디자인에 뜻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여 산업 디자이너의 양성에 적합한 전공 교육 과정을 이수토록 하는 것과 응용 미술 학과나 공예 학과 등에서 3학년부턴 전공 실기만 교육하는 것과는 실력이나 정신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응용 미술 학과라고 해서 산업 디자인 전공 분야가 전부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여자 대학의 응용 미술 학과는 많아도 여자 대학의 특성으로 인하여 산업 디자인 전공 분야를 들 수 없는 형편이며, 또한 대부분의 남녀 공학 응용 미술 학과도 전공별(산업 디자인전공) 교육을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응용 미술 학과는 여학생이 태반이며, 심지어 응용 미술 학과는 여학생이나 진학하는 학과로 착각마저 하고 있는 데는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렇듯 현대 산업 사회에서 산업 디자이너 양성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사회 일각에서는 양식 있는 인사들마저 디자인 계열 학과를 미술로 착각하고, 디자인 인구를 미술 인구로 보기 때문에 전문 분야별 디자인 학과의 설치가 절실한 데도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공부에서 2년 전 당시 디자인 과장 백철 씨가 주동이 되어 응용 미술학과·생활 미술학과·산업 미술학과·공예학과 등을 디자인 학과로 개칭할 것을 추진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만 것은 디자인 계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한다.

이러한 교육계의 현실정과는 달리 수출 시장과 산업 발달로 삼성·금성·대우·대한전선 등 몇몇 대기업들은 수년 전부터 산업

디자이너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들을 잘 활용하여 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판매고를 높여 기업의 이윤을 올리고 있고 해마다 산업 디자이너를 증원하고 있으나, 이들 기업들이 증원하고자 하는 유능한 산업 디자이너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이며 뼈아픈 일인데, 전공 학과가 설치되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러한 현상은 산업이 발전할수록 정비례하여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의 산업 디자이너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유능한 산업 디자이너 양성을 위하여는 대학에 산업 디자인 학과 설치가 시급하나 이는 디자이너나 교육계의 힘만으로는 현실정(문교 정책)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에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만 설치가 될 것이며, 국가 산업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우리 나라 산업의 현실과 산업 디자이너

우리 나라의 산업 구조는 이제 그 방향을 전환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지금까지 경공업 중심으로 하는 수출 산업 구조는 경공업 제품에 대한 수요의 제한성과 개발도상국 상호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한계점에 도달하였다고 보며, 또 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에 더 이상 매력을 두지 않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따라서 공업 입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술 집약적 중공업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기업들은 그 동안의 노력으로 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 분야에 있어서 급진적 발전을 이룩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제품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디자인은 선진국인 미국·영국·서독·일본 등에 비해 아직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

을 기업인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아직도 제품 개발에 있어서 산업 디자이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며, 또한 디자인 개발을 위한 자금 지출에 인색한 실정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 습득에 급급한 나머지 산업 디자이너에 의해서 제품을 개선하고 양질화하려는 노력보다는 모방이라도 해서 빨리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기업인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본다. 이는 제품 디자인이 어떻게 되었건 간에 성수기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없어서 팔지 못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제품 고급화는 요원하게 되며, 국제 시장(수출 경쟁)에서 제품의 인정은 고사하고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으로 처분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할 것이 분명하다.

현대의 기업 성장은 수출 산업에 있고 수출 산업 경쟁의 성패는 제품 디자인 경쟁임을 기업인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기업주들은 디자인 채택을 모험이라고 하는 반신반의의 전근대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외국 제품의 디자인을 흉내내는 잔재주와 고질적 악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품 디자인의 연구 개발을 과감하게 시도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업주는 유능한 디자이너의 확보는 물론 디자이너에게 경영진에의 참여 기회를 주고, 해외 연수와 견학을 시킴으로써 해외 정보에 눈을 뜨게 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할 때, 기업도 살고 국가도 고도 성장으로 출달음질칠 것이다.



5% 美의 作業?

梨花女子大学 美術大学 助教授

李 順 嬪

실용적 목적성을 실체화하기 위한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의 작업이 부수적으로 따르기 마련이다.

가령 어떤 제품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우선 용도를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구조와 목적, 목적에 적합한 재료, 기계와 도구를 이용한 조형 기술, 환경이나 습관에 의한 전통성, 시대적 양식과의 조화 등의 자료 수집이라든가 이들을 합리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정확한 지식의 습득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작업이 수행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도 특히 조형적 미를 표현하기 위한 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에 비하여 겨우 5%에 불과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과연 인간의 생활 환경을 이루고 있는 실용적 조형의 세계가 불과 5%의 미적 작업에 의해서 아름답게 조성되었을까 하는 데 대해서 다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러한 5%라는 수가 얼마만큼의 계량적인 신빙성을 갖고 있느냐에 초점을 두고 따지기 이전에 이는 미의 작업이 실용적 조형의 세계를 형성하려는 과정에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요인 중에서 극소의 일부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하는 데 불과하다고 본다. 미의 작업이란 본래 아름다움을 꾸미기 위한 인간의 궁극적인 욕구 과정으로 미만을 추구하려는 예술 분야는 물론 모든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비록 미와는 거리감을 갖고 있는 듯한 기계 공학 내지는 구조를 연구하는 과학자에게도 인간의 보다 나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으며,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다고 본다. 이들에게도 궁극의 목표인 미를 향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미의 비중이 중요함에 비추어 5%라는 애초한 양으로 작업 기능을 설명하려는 데도 앞에 기술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제요인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목적에 적합하고 조화있는 통합체로 구성하려는 작업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목표를 향해서 정밀하게 조사·검토·분석된 결과를 가지고 기계적으로 합쳐졌다 하더라도 미의 작업을 소홀히 여겼다면 경시하였다면 그 결과는 소기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어떤 제품을 일반 수요자의 필요에 의해서 아무리 조작성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수요자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작업이 결여되었다면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사용 목적을 가지고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미적 결합 작업의 충실도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음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비록 5%라는 극소의 수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미의 작업이라도 조형의

세계를 이룩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실용적 조형의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디자이너는 여기서 오직 주관적인 감각의 미만을 추구하고 있느냐가 문제이다. 만일 앞의 물음을 그대로 긍정한다면 이는 전근대적 디자인 개념인 미술의 응용이라는 부가적 미를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의 작업이 조형의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제요인 중의 일부로서 이해하는 데 그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의 작업 기능도 5%를 초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오늘의 현대 디자이너란 미의 부가적 역할에서 벗어나 제반 기능을 합리적으로 통합해서 새로운 실용적 조형의 미를 창조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디자이너는 보다 객관적이고 폭넓은 과학적 지식과 사고방식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의 기초를 확립함으로써 디자인상에 제기되는 제반 요인의 추출 검토·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함은 물론 종합 과학적(Interdisciplinary)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Gyorgy Kepes의 말을 빌면, 디자이너는 「과학자의 머리, 시인의 마음, 화가의 눈」을 가지고 정진해야 할 것이며, 결코 5%의 애초한 미의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되리라고 본다.

『아르 누보』 Art Nouveau Poster

1950년 함부르크에서 개최된 「아르 누보」 전(展)을 필두로 취리히·프랑크푸르트·뮌헨·뉴욕·파리 등에서 「아르 누보(Art Nouveau)」에 관계되는 각종 전시가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그리고 1962년 「로버트 슈므즐러(Robert Schmutzler)」가 「아르 누보」를, 1965년 「모리스 렌스」가 「꽃피는 아르 누보」라는 책을 차례로 발간하면서 세기 전환기의 새로운 미술 스타일로서 「아르 누보」에 대한 연구와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아르 누보」는 「메종 드라르 누보」에서 유래

또한 포스타로서 「아르 누보」에 대한 관심은 1965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미술관에서 열렸던 「유겐드스틸(Jugendstil)」과 상징주의 포스타 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 팝 포스타(Pop Poster)라는 새로운 변화에 찬 포스타를 탄생시키는 직접적 동기가 되었다.

석판 특유의 색채로 생동감 넘치는 율동미를 표현한 「줄 웨레」의 포스타.



**PALAIS
DE
GLACE**

Champs-Elysées

FOLIES BERGÈRE

Fleur de Lotus
 BALLET-PANTOMIME EN 2 TABLEAUX
 DE M. ARMAND SILVESTRE
 Musique de M. L. DESORMES Mise en Scène de M^{ME} MARIQUITA

**QUINQUINA
DUBONNET**

APÉRITIF
dans tous les Cafés

당초 문양의 꽃장식과 길고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의 유기적인 곡선 등 음악적인 시각 표현으로서 우아한 「아르 누보」 양식을 나타낸 「알퐁스 무사」의 포스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아르 누보」는 벨기에의 건축가이며 공예가인 「반 데 벨데 (Van de Velde)」의 실내 장식으로 문을 연 화랑 「메종 드라르 누보 (Maison de l'Art Nouveau)」에서부터 유래된 용어로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약 20년에 걸쳐 유럽에서 번성한 새로운 예술 운동으로부터 나온 한 스타일을 말한다. 각 세기 각 국민마다 그의 미(美)와 도량의 표현을 가지고 있었듯이 19세기 말에 이르러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끝없는 욕구와 세계의 종말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엇갈려 있었다.

이러한 조류는 상징주의와 오스카 와일드 (Oscar Wilde)로 대표되는 유미주의(唯美主義)로 연결되었으며, 지금까지 모든 예술을 갈라놓은 의식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내적인 유사성(類似性)을 통한 상호 침투를 형식에 서뿐만 아니라 각 예술의 장르 사이에서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부르짖게 되었다. 즉, 회화·문학·음악·디자인의 모든 예술에는 우월이 있을 수 없으며, 모든 예술가들은 독자적인 사상을 가지면서도 보다 커다란 전체를 위해서 상호 유기적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시(詩)와 회화(繪畵)의 두 예술로서 독자적이고 거대한 신화 체계를 구축한 영국의 시인 「윌리엄 블레이크 (William Blake)」에 의해 예고되었으나, 이 시기만큼 예술가의 재능이 다방면에 걸쳐 종합되었던 시기는 없었다.

자연히 그 표현 영역은 확대되고 예술성에 있어서의 인간의 생활은 개조되고 변형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예술을 종합하는 일은 르네상스 이래로 없었던 일로서 「아르 누보」의 커다란 의의라 하겠다.

이러한 「아르 누보」의 초기 경향은 영국·독일·프랑스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벨기에를 중계로 하여 유럽 전역에 파생되기 시작했으며, 그 양식은 민족적 체질과 토양에 따라 약간의 다른 경향을 띠고 발전하였다.

책의 삽화로부터 출발하여 공예나 가구에 까지 발전한 영국의 모던 스타일 「로코코 (Rococo)」양식의 전통을 감각적인 형태로 개발하여 우아하고 세련된 표현이 앞섰던 프랑스의 「르 스텔모 모데르느 (Le Style Moderne)」 그리고 기하학적 경향을 띠고 민중을 중심으로 독일에서 개화된 「유겐트스틸 (Jugendstil)」, 「오토 바그너 (Otto Wagner)」, 「요셉 울브리

히 (Joseph Olbrich)」, 그리고 「구스타프 클림트 (Gustav Klimt)」에 의해 오스트리아의 비인에서 결성된 「세세션 (Secession)」.

이와 같이 「아르 누보」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싹튼 예술의 꽃은 자기 그 나름대로의 변형된 스타일을 가지고 유럽 전역에 만개하였던 것이다.

미술가와 사회간에 새로운 관계 형성

「아르 누보」포스타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근대 포스타의 발단은 이러한 시기를 정점으로 하여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독일인 「알로이 세네펠드 (Alois Senefelder)」에 의한 석판술(石版術)의 발명과 독일의 게르하임 지방에서 생산되는 석판석(石版石)의 보급 및 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생산 관계에 치우쳤던 신흥 자본가들의 지배 계급으로의 등장, 화가들의 포스타 예술에 대한 흥미로운 접근 등의 제 여건은 미술가와 사회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포스타는 일상생활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며 거리를 엄습했다.



쉴레와 으젠느 그라세는 현대 포스타 발전의 대표 작가

특히 파리의 산업·중류 계급 취미를 의식할 여지 없이 대표할 수 있는 줄 쉐레(Jules Chéret)의 등장은 다색 석판술(多色石版術)의 기법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많은 화가들에게 매체를 근본적으로 변형하기 위한 시도를 하게끔 촉진하였다. 「쉴레」와 「으젠느 그라세(Eugène Grasset)」는 현대 포스타를 화려하게 발전시킨 대표적인 작가로서 특히 「쉴레」는 90세의 고령으로 타계할 때까지 생애 1천 매 이상의 포스타를 제작하여 포스타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았던 것이다.

움동감이 충만한 형태와 자유스러운 구성, 석판 특유의 투명한 색채 표현에 의한 넘치는 생동감과 인물 표현시의 우아한 움직임, 이러한 그의 포스타는 파리 시를 수놓았으며,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포스타 예

술로서의 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투루스 로트렉(Toulouse-Lautrec)」의 참여는 포스타를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아르 누보」 포스타를 화려하게 꽃피웠던 해피에로티시즘(Happy Eroticism)의 작가로서 알폰스 무샤(Alfons Mucha)의 포스타는 이 시대의 모든 양식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하겠다.

당초 문양(唐草紋樣)의 꽃장식과 길고 곱슬 거리는 머리카락의 유기적인 곡선 등의 음악적인 시각 표현으로서 특히 우아한 「아르 누보」 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그의 포스타의 강한 장식성은 거리보다는 주로 실내에 게시되었다.

이 외에도 그 시대에 활동한 포스타 작가로서는 영국의 「더들리 하디(Dudley Hardy)」와 「오브리 비어즐리(Aubrey Beardsley)」, 미국의 「윌리엄 브래들리(William Bradeley)」와 「에드워드 펜필드(Edward Penfield)」 등을 들 수 있겠다.

자연물의 형태에서 소재 찾은 「아르 누보」 포스타

미술의 소재로서 식물이나 동물은 오래 전부터 인간에 의해 사용되어 왔다.

특히 식물은 싹이 트고 꽃이 피고 하는 생명의 흐름의 근본 원리가 있어 인간을 매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르 누보」의 특징은 「자연주의」적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장식의 소재를 자연물의 형태에서 얻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생활 주변에서 관찰했던 동·식물의 자태에서 과도치는 듯한 움직임적인 곡선을 유추하여 사용함으로써 「아르 누보」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회적 여건으로서 산업 혁명 이후 전기(電氣)에 의해 밝아진 실내 공간을 위한 장식의 필요에 의해서 생활과 직결되는 「아르 누보」 포스타는 발전했던 것이다.

평면화된 단순한 형태와 정확한 nét상, 개성 있는 필세(筆勢)로 포스타 예술에 있어 사적(史的) 가치를 가지고 있는 「투루스 로트렉」의 포스타.



KS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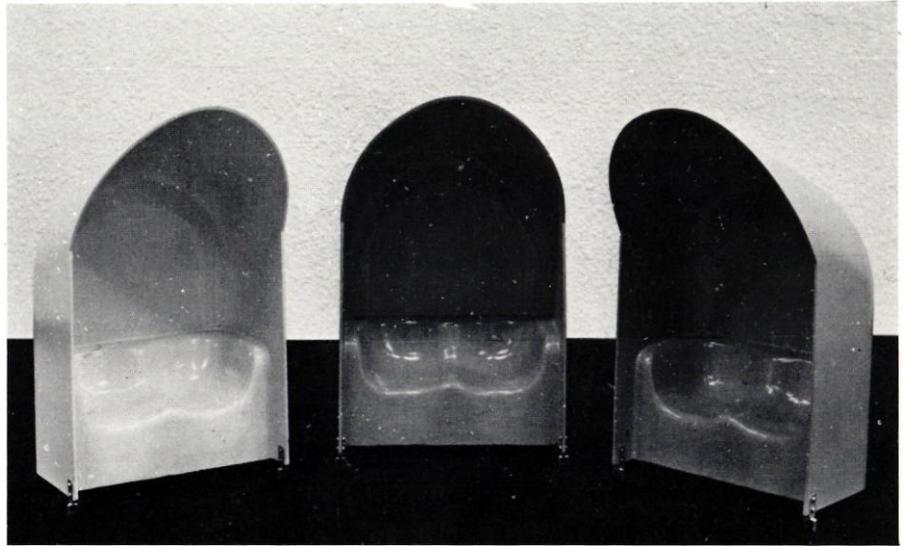
제 7 회 회원전 및 제 1 회 공모전

서울대학교 美術大學 教授 夫 守 彦

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협회는 제 1 회 한국 공업 디자인상 공모전과 함께 레저 (LEISURE)를 주제로 제 7 회 회원 전시회를 개최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지난 1972년 창립전을 가진 이래로 협회는 전기·전자전, 어린이의 세계, 여성을 위한 디자인, 조명전, 도자 전시회 등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친선 도모와 창의적인 연구 활동의 발표를 해왔다.

금번 제 7 회 회원전의 주제인 「레저」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대로 국민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여가 선용을 위해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의 발굴을 목표로 하였으며, 安鍾文 작 「스케이트 보드」 등 많은 회원들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젊음의 공간을 위한 퍼니처
회원 정경원 작

심사위원 명단

- 위 원장 閔哲泓 (서울미대 교수, 공업디자인)
- 위 원 金壽根 (공간사 대표, 건축)
 - 韓道龍 (홍익미대 학장, 공업디자인)
 - 趙英濟 (서울미대 교수, 시각디자인)
 - 夫守彦 (KSID 회장)
 - 朴容貴 (P. K. 디자인 대표, 공업 디자인)
 - 鄭時和 (국민대 교수, 디자인 평론)

「제 1 회 한국 공업 디자인상 (THE 1st KOREA INDUSTRIAL DESIGN PRIZE) 공모전」

한국 인더스트리얼 디자이너 협회(KSID)가 제정한 제 1 회 한국 공업 디자인상 공모전이 지난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전시실에서 열렸다.

대상(大賞)인 「한국 공업 디자인상」은 「다목적 소형 자동차(TERA-VI)」를 출품한 具聖會 지영환 양씨가 차지했고, 우수상(優秀賞)은 「도시형 소형 자동차」를 출품한 박민규·황봉철·강남득, 「보도 계획(步道計劃)」의 김현,

「간편한 AM·FM 라디오」를 출품한 이혜린 씨 등이 수상했다.

그리고 「지체 부자유자를 위한 자동차」(임창영) 외 10점이 입선으로 선정되었다.

심사평

민 철홍(閔哲泓) <심사위원장>

제 1 회 한국 공업 디자인상 공모전은 공업 디자인 분야만으로는 처음 있는 공모전이고, 또한 주최측에서 미리 주제를 제시했던 「주제전(主題展)」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주제별 응모 작품수에서는 응모작이 가장 많았던 「전기·전자 제품 디자인」부문을 제외하면 대체로 비슷한 숫자로 출품되었다.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특기할 것은 응모작품이 가장 많았던 「전기·전자 제품 디자인」부문의 내용이 다른 부문에 비해 오히려 침체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이 공모전의 성격에 대한 응모자의 충분한 이해의 부족에도 기인하겠지만 이 부문에 출품한 응모자가 대상으로 삼은 작품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인 가

능성의 제시, 다시 말해서 작가 나름의 기본적인 「컨셉트」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채 기존 제품에 그 모델이나 부품에 있어서 보다 접근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한계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흔적이 있었다고 본다.

반면에 일반의 참여가 비교적 어렵고 생소한 「소형 자동차 디자인」부문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도 특기할 일이다. 특히 제 1 회 한국 공업 디자인상을 차지한 「다목적 소형 자동차(TERA-VI)」는 그 대상 자체가 갖는 기능적·구조적 계획뿐만 아니라 그 역할에 대해서 밀도 있게 해석해서 조형적 처리까지도 우수하게 해결한 수작(秀作)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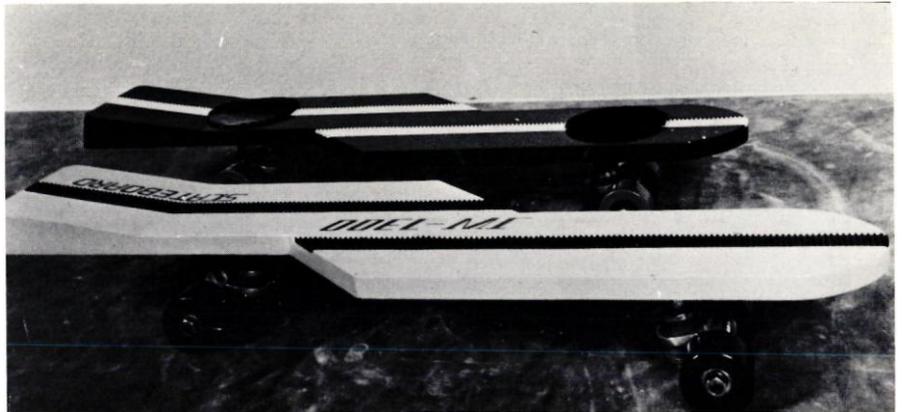
「스트리트 퍼니처 시스템 디자인」부문에서는 역작(力作)이 다수 응모되어서 우수상으로도 1점이 선정되었다. 이 부문에서는 입지조건(立地條件)과 상황 설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에 입각하여 합리적이고 기능적이며 도시미관에도 부합될 수 있게 계획되어야겠지만, 응모작품 중에는 스케일에서나 실제의 재료에 대한 배려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앞으로 이 부문에 관심을 가진 응모자들

이 유념(留意)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어린이를 위한 디자인」 부문에서는 다양한 소재가 출품되었는데, 그 중에는 너무 다목적의 무리한 기능과 효용성(效用性)의 설정으로 노력에 비해서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완결되지 못한 작품들이 있었다. 한 가지 주제라도 더욱 착실하게 파고 들어서 어린이들의 심리적·생태적 특성에 대하여 보다 연구되었으면 더욱 우수한 작품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공모전의 의의나 성격은 즉시 개발되어서 직접 제품에 반영되지는 일차적인 욕구에 있다기보다는 공업 디자인의 본질과 검토되어야 될 근본적인 문제에 얼마만큼 접근했느냐는 심도(深度)의 문제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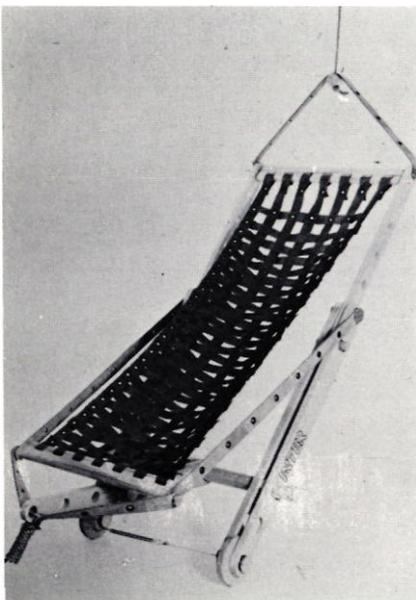
끝으로 이번 심사는 아이디어의 구상에서부터 표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평가한 엄선 위주(嚴選為主)의 심사였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밝힌다.



스케이트 보드 (Skate Board)
회원 안종문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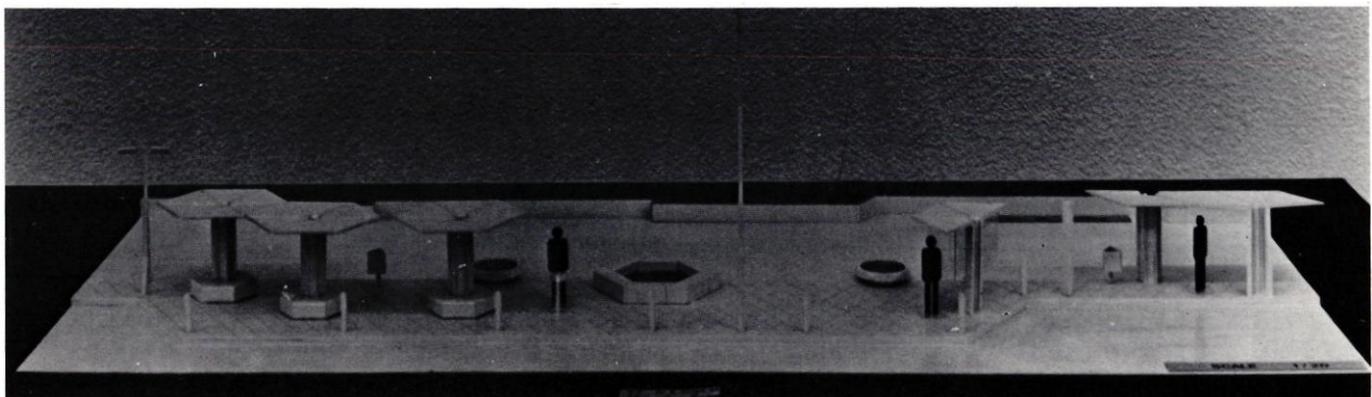
입선 레이저광에 의한 Disk Deck
백승복작



함목 (Hammock)
회원 조벽호작



포터블 TV Set
회원 서병기작



우수상 사이드 워크 시스템 (Side-Walk System) 김현작

외국의 패키지 디자인 개발 사례

Suchard-Express

韓國 디자인 包裝 센터 主任 研究員 金 鍾 午

세계적인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한국, 그러나 아직껏 우리는 모방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의 제품 개발 사례(패키지를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제품이 되는)를 소개하면서 디자인 조사(Design research)와 독창적 디자인 개발이 매우 중요함을 부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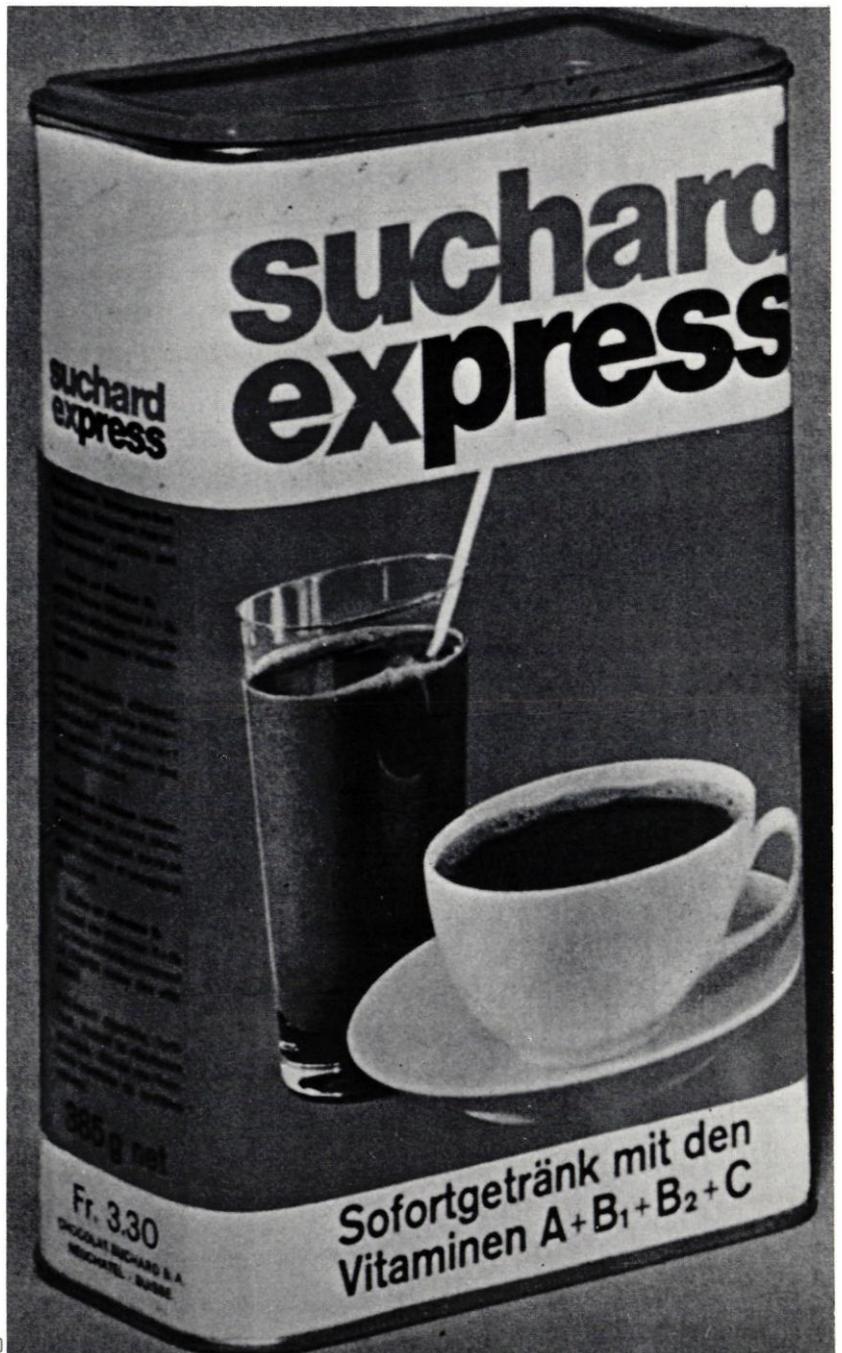
1

오랫동안 하향하는 판매 통계를 주시하면서 고민하던 Suchard사의 수뇌들은 그들의 제품인“Suchard-Express”(chocolate drink)가 이 이상 더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그 이유로서 현재의 패키지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상을 주고 있으며, 세월이 지남에 따라 스위스 소비자들의 음료용 초콜릿류에 대한 소비 태도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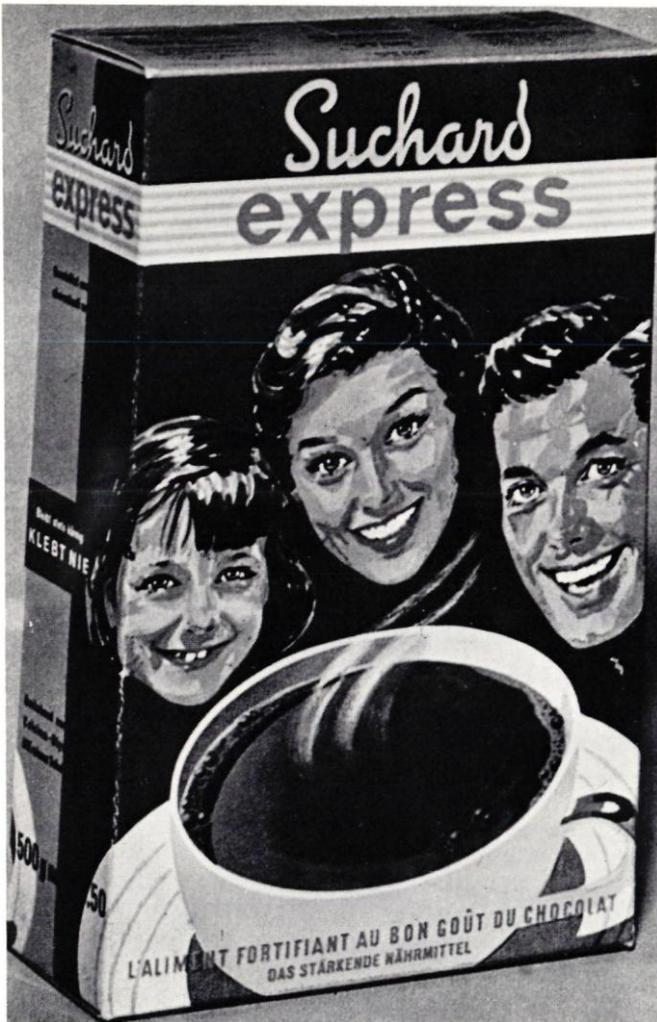
2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브라운 색조의 패키지(사진 2)는 스위스 인들이 음료용 초콜릿을 마시고 “점심때까지 견딜 수 있는 영양 음료”로 생각했던 시절에나 알맞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스위스 소비자들의 chocolate drink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은 신문·라디오 등의 매스컴을 통하여 이제까지 관심밖이었던 의학적 지식—소화·건강·영양 식품 따위—들을 접할 수 있었고, 따라서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단백질(protein)·비타민 등과 같이 매우 전문적이었던 단어들은 일반 대중 누구나가 입에 올리는 생활 용어가 되었으며, “가볍고 신선하고 쉽게 소화되는 건강한 식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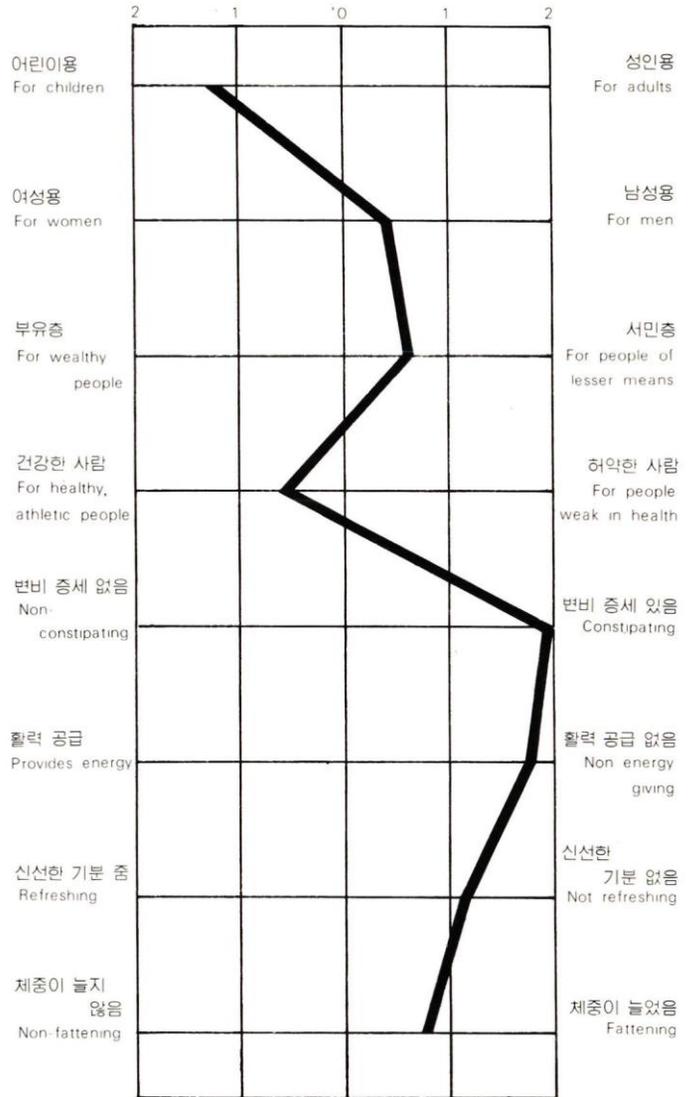


[사진 1]



[사진 2]

(도표) 구 패키지 디자인의 이미지 조사 결과



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Suchard사는 새로운 패키지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었다.

③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자 Suchard사는 시장 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현재의 패키지가 지닌 문제점들을 좀더 명확히 하도록 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조사 담당 기관은 15명의 선별된 사람들을 통하여 Suchard사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소비자들의 구 패키지에 대한 인식 구조를 조사한 결과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Brown Package의 "Suchard Express"는 "① 아무런 활력도 없는 정적인 느낌을 줄 뿐이다. ② 기분을 새롭게 해주는 신선한 힘도 없다. ③ 어린이용 chocolate drink라는 소극적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는 인식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④

조사 담당자들은 그들의 명확한 보고서를 통해서 근대적인 감각의 완전히 새로운 패키

지 디자인을 개발할 것을 건의하였다. 이것은 "아버지·어머니, 그리고 꼬마 소녀"의 얼굴을 전면에 전개한 현재의 디자인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건의한 것으로서 경영자들에게는 매우 힘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Suchard사는 전문적 견해를 받아들이고 근대적 이미지의 새로운 4개의 패키지 시안을 제작하였다. 이 시안들은 ① Light green, ② White & light blue, ③ Light blue, ④ White(아주 가볍고 명량한 분위기로서 쉽게 소화할 수 있다는 암시를 내포하고 있는 흰 색조를 뜻함)의 Color variation을 가지고, 어린이이용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배제하고, 동시에 Energy Factor(성인용이라는 느낌을 주는)를 강조하는 엄격한 테두리(design concept=marketing aim) 안에서 신중하게 그래픽을 전개한 것들이었다.

⑤

이 새로운 시안(dummy package)들은 다시 면밀히 조사되었으며, 그 결과 White & light blue의 패키지(사진 1)를 선정하게 되

었다. 이 패키지는 첫째 light product라는 인상을 주며, 둘째 맛이 있고, 세째 여성 고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남성적인 Spotic한 기분을(light blue와 white의 combination은 푸른 하늘과 비타민을 암시함) 주므로 남성 소비자 중심의 전략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새로운 패키지 디자인은 지금까지의 패키지와는 달리 변비를 주는 듯한(Suchard-Express, 즉 초콜릿을 마시므로써 생기는) 인상이 없어졌다는 소비자 반응을 보였으므로 더욱 Suchard사의 경영자들을 만족시켜 주었다.

⑥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 번잡스러운 감이 있는 이들의 요란한 소비자 조사의 목적은 보다 확실한 상품을 만들기 위하여 최소의 비용을 투입하고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패키지 상품의 경우, 패키지는 최우선가는 배려로서 제품 기획에 임해야 할 것이다. 패키지 제작 과정에 있어 디자인 조사는 필수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 김 익녕 도예전

국민대 교수인 김 익녕 씨의 네 번째 도예전이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서울 통일 화랑에서 열렸다.

전통 백자를 현대 감각에 맞게 자연스럽게 변형시키는 작업을 해온 김씨는 이번 개인전에서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기물과 문방구를 주로 한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과반·수반·합·반상기 등과 버루·연적 그리고 흑유(黑釉)·분청(粉靑) 작품도 곁들여 생활 속의 공예를 보여 주었다.

서울대 화공과를 졸업, 뉴욕 주립 「알프레드」 요업 대학원에서 미술 석사 학위를 받은 김씨는 일본 「교오토」대 초청 강사를 지내기도 했다.

● 윤 광희 도예 작품전

도예가 윤 광희 씨의 두 번째 작품전이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서울 현대 화랑에서 열렸다.

윤씨는 소박한 질감의 분청 사기에 전념해 온 작가로서 이번 도예전에는 자기 표면을 굽어낸 선과 점의 문양을 살려 꾸밈 없는 아름다움과 기능미를 강조한 분청 작품을 선보였다.

● 제 1 회 목(木) 그룹전

제 1 회 목(木) 그룹 회원전이 지난 1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 전지 화랑에서 열렸다.

정수 직업 훈련원 교사 김 한희 씨가 창립한 이 목(木) 그룹은 순전한 목공예 모임으로서 주로 정수 직업 훈련원 목공예과 출신들로 이번 창립전에는 20여 명의 회원이 50여 작품의 다양한 형태의 목공예 작품을 선보였다.

● 김 승희 공예 초대전

김 승희 금속 공예 초대전이 지난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통일 화랑에서 열렸다.

김씨는 서울대 미대를 나와 1970년 도미, 「크렌부르크」 미술 대학원과 「인디애나」 주립대에서 금속 공예를 전공한 후 1975년 귀국했다.

국내 거인들에게 관공 기법을 익힌 김씨는 이번 초대전에서 용기·춧대 등 실생활에서 쓰여질 수 있는 작품으로 구리를 재료로 한 김씨의 작품은 소박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살렸다.

현 서울 미대 강사인 김씨는 한국 공예대전, 제 2 회 전국 공예가 초대전 등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 채염회 회원전

실용품을 위한 채염전이 지난 12월 14일

부터 19일까지 한국 화랑에서 열렸다.

공간 가리개, 장식용 받침, 벽걸이, 스키프, 어린이 옷, 벵타이 등에 갖가지 그림 도안을 염색한 작품 1백여 점을 전시했는데, 이 전시는 이화여대 미대에서 염색을 전공한 동문들이 마련한 것이다.

출품 작가는 김 경숙, 김 영혜, 오 공, 홍영숙, 장 현이, 정 보미, 장 연국 등이다.

● 에뛰드 14인전

에뛰드 14인전(그래픽 디자인)이 지난 12월 14일부터 18일까지 그로리치 화랑에서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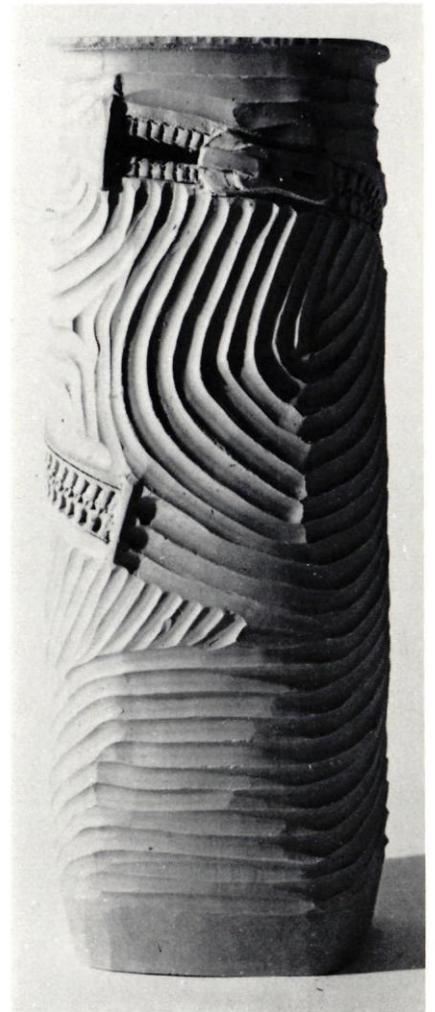
이 전시회에는 김 현웅, 나 홍찬, 신 선옥, 우수형, 전 연일, 한 호림 등의 작품 30여 점이 출품됐다.

● 한국 도예 작가 회원전

제 6 회 한국 도예 작가 회원전이 지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서울 미도파 화랑에서 열렸다.

도자 재료의 선택과 성형·소성(燒成) 방법에서 얻을 수 있는 내화물(耐火物)의 효과에서 재료의 충실한 기법을 다양하게 전개시켜 작

서한달 氏作「作品」



가의 개성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 제시함으로써 도자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작들을 통해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노력했다.

이번 회원전에는 이 부웅, 서 한달, 이 일로, 김 회영, 권 영식, 한 봉림, 엄 상문, 최 정봉, 김 진우, 황 성진, 권 오훈, 신 상호, 오 천학, 고 성중, 최 건, 황 용식, 남 윤, 이 행정 등이 출품한 40여 점이 전시됐다.

● 제 5 회 69 전

1969년도 홍익 대학교 미술대학 입학 동기 모임인 제 5 회 69 전이 지난 12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서울 견지 화랑에서 열렸다.

성탄을 축하하고 모두에게 평면과 입체의 즐거움을 팔고루 심겠다고 “크리스마스 와 함께” 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는 권 기덕 씨의 「고요한 밤 A, B」 등을 비롯하여 김 기풍, 김 명석, 김 우중, 박 인철, 성 동욱, 오 원택, 유 가용, 이 관영, 이 종량, 정 민성, 정 용주, 정 영환, 조 호영, 최 건, 최 동재, 한 성수, 황 용식 등 19명의 회원이 30여 작품을 출품했다.

● 중앙 그래픽회 한·일 교류전

중앙 대학교 예술 대학 공예학부 출신들로 이루어진 중앙 그래픽회 제 7 회 전시회가 지난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한국 디자인 포장 센터 대전시실에서 열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중앙 그래픽 회원과 일본 판화가 회원간의 교류전을 겸했는데, 한·일 양국 회원들의 예술을 통한 교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본 전시는 신 언모, 김 성실, 장 완영, 박 덕원, 구 동조, 김 강용, 김 종선, 김 현, 김 춘오, 장 완두, 정 기양, 김 정봉, 김 용현, 김 정연, 남 용현, 이 진남, 송 태근, 한 제웅 씨 외 14명의 40여 작품이 출품됐고, 일본 판화가 교류전에는 작가 永野昭夫 외 7 명이 8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 안 영배 건축 사진전

한국 건축의 외부 공간을 주제로 한 안 영배 건축 사진전이 지난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토탈 디자인 화랑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에는 작가가 오랜 기간에 걸쳐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23 개소를 찍은 작품 50여 점이 출품됐다.

● 캠퍼스 소식

덕성 여자 대학 : 음미과 제 13 회 졸업 작품전이 지난 12월 1일부터 7일까지 동 대학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작품전에는 오 윤희의 77명의 금속·염직·도자기 작품 2 백여점이 전시됐다.



박 인 철 씨 작
「Triangle + Curve」



金正峰氏作

한양 대학교 : 생미과 제 3 회 졸업 작품전이 지난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출판 문화 회관에서 열렸다.

졸업생 정 안순 외 18 명의 작품 20여 점이 출품되었다.

명지 실업 전문 학교 : 제 5 회 명지 실업 디자인전이 지난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신

문 회관 전시실에서 열렸다. 공예과·도안과 재학생의 전작품 100여 점이 출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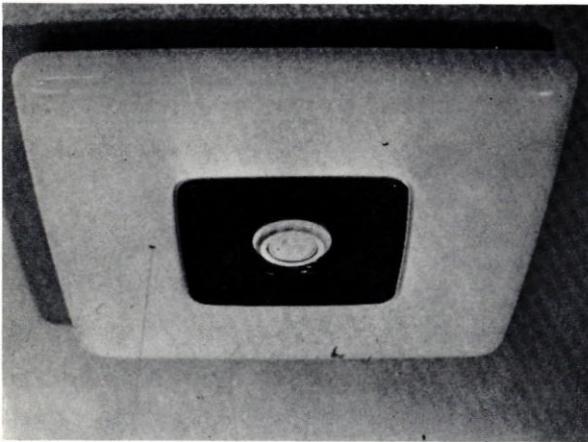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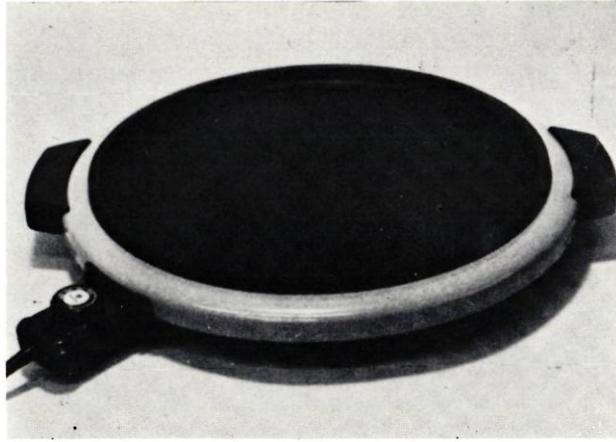
계명 대학 : 제 6 회 계명대 미술학부 교수 작품전이 지난 12월 3일부터 9일까지 마산 동서 화랑에서 열렸다.

정 점식, 이 지휘, 김 영태, 유 병수 교수 등의 작품이 출품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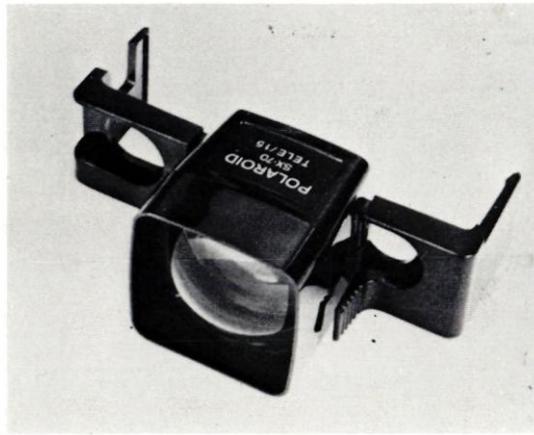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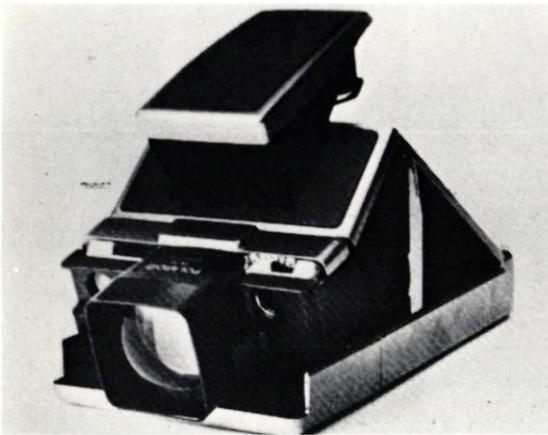
New Product



- 自動火災速報器
- 韓國 새한 리전社 製品
- PORT PLATE
- HPS-1020M
- 日本 三洋電機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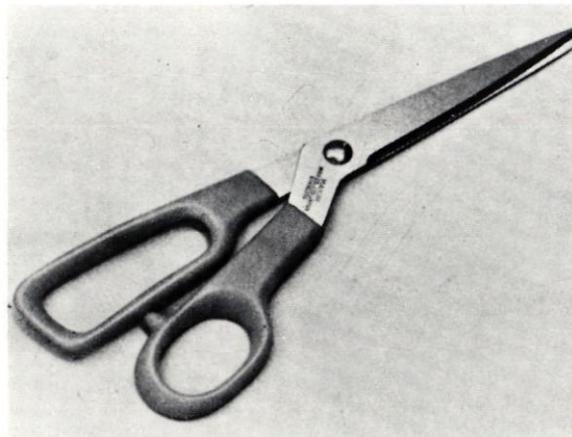
- LD Light
- HA7625GPL
- 日本 松下電工社
- 電氣 마사지器
- EP-555
- 日本 松下電工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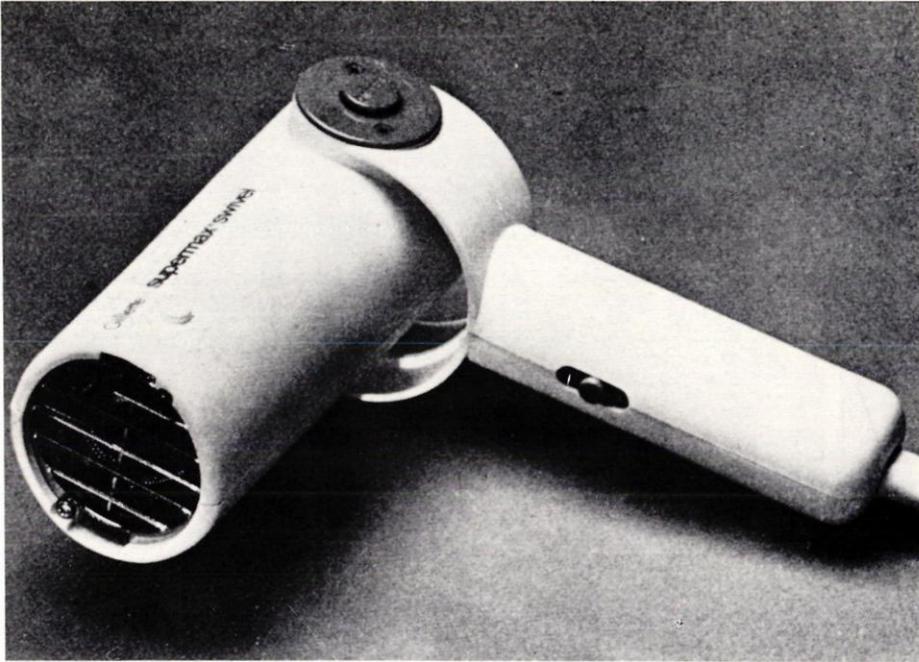


- 폴라로이드 카메라
- 배율 1.5 배의 SX-70 망원렌즈를 쉽게 부착할 수 있는 폴라로이드 카메라. 망원렌즈의 부착용 다리는 Polycarbonate 재료로 했다.
- 제작/Polaroid Continued



- 除湿機
- DW-348L (WG)
- 日本 Sharp社
- 가위
- 日本 마구스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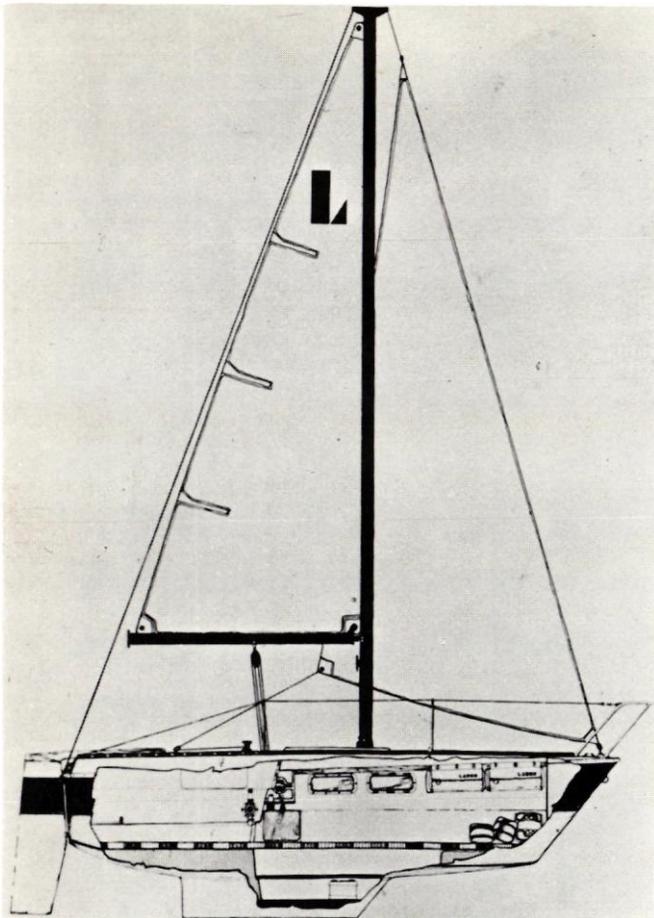
● 권총형 Hair-Drier
 접었다 폼다 할 수 있고 간단한 형태로 접을 수 있는 Compact한 특징의 Hair-Drier. 재료는 Polycarbonate, 문자는 실크 프린트 처리.
 제작/North American Philips



● 다용도 Hair-Drier
 Supermax Swivel이라 이름붙은 다용도 Hair-Drier로서 Swivel은 접었다 폼다 할 수 있는 기능을 상징한다.
 제작/Gillette Appliance Division, Boston.



● MILD VODKA 樹水
 일본 Suntory 사 제품
 ● 충청남도 관광 안내 손수건
 1978년 8월에 개최된 제 8 회 전국 관광 민예품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는 충청남도에서는 제 9 회 대회를 대비한 토산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충청남도에서 개발한 충청남도 관광 안내 손수건 디자인이다.



● 요 트

전장 5m 길이의 선체는 7개의 하부 빔(Beam)으로 지탱된다. 선체의 크기에 비해 많은 실내 면적을 갖고 있으며, 감판도 최대한 넓게 살린 것이 특징이다. 내부 구조는 4명의 성인이 쓸 수 있는 침실·주방·휴대용(Portable) 화장실과 자동 조정이 가능한 조정실을 갖고 있다.

제작/Largo Sailboats,

Aspen, Colo.

● 자전거용 백과 백걸이 세트

백을 부착하기 위한 장치가 길이 8인치 21온스 무게의 알루미늄 안장에 설치되어 있고, 안장은 어느 자전거에나 쉽게 부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백은 안장 앞에 장치된 홈에 손쉽게 밀어넣었다 뺄 수 있으며, 작동이 간단하고 무게가 가벼운 특징을 갖고 있다.

제작/Eclipse

